朝鮮日報
夕刊
十七日(月)
本紙朝夕刊二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既存條約의尊重과 機會均等의原則을强調

一切의國際的權利와米國의諸權利遂行

米國務次官極東問題에言及

【시카고十五日發同盟】國務次官 윌리암·필립스氏는 十五日 [illegible] 外交關係[illegible] 政策을 論[illegible]에 言及[illegible]의 諸現[illegible] 放、機會均等[illegible] 調하얏다 [illegible] 旨는다음과갓다

極東에서는 現在革命的及進化的展開를 行하고잇는 米國政府의 政策는 어데까지든지 精勵同情忍耐的態度로 同地方에 在한國民의 權益을 擁護하고 同地方에在한 一切의 國際的權利及米國政府自身의 諸權利를 遂行하는바이다 國際問題의 平和的解決을 期하는 既存諸條約에 依하야 規定된諸原則은 勿論 完全하고 또遂行하면 極東地方에 在한 正義와 平和確保에 寄與할바 만흘것을 確信한다 中國에在한 門戶開放 機會均等의 原則은 米國政府가 엽속이 主張한바이나 最近 자조 同原則이 蹂躪되는 事件이 惹起되는것은 遺憾이다 그러나 米國政府로서는 어데까지 이原則을 固守한다 어떤 一國이나 一國을 不問하고 此地域에 關한것을 放棄할은 決코 賢明한 處置가아니다 米國政府는 斷然容認치안는바이다 本是부터 米國政府는 極東에 如何한 國家에 對하야도 自國의 政策을 强制하지안는다 또 如何한 國家에 對하야도 侵略的行動을 取할意圖를 가지잇슴은 업다

伊에主力激戰!

에國側에死傷者二萬

【마칼레十六日發同盟】伊太利北軍은 去十一日以來總司令官파드리오元帥指揮下에 南方에 向하야 進擊을 開始하야 到處에서 [illegible] 相當케라將軍引率下의 에디오피아軍主力部隊와 激戰을 展開하엿는대 十五日未明에 至하야 伊太利軍은 俄然全線에亘하야 殲滅的猛攻擊에 移하야 一擧에 아노탐、헤리코크、벨사이、아다마이치아等의 要地를 占據하엿다 이戰鬪에잇서서 에디오피아軍의損害는 無慮二萬人、伊軍의死者四百名 負傷者五百名合計九百名이라는 未曾有의 犧牲者를내게되엿다

西班牙總選擧 左翼斷然優勢

【마드리드十六日發同盟】十六日施行된 西班牙議會總選擧結果判明되는바에依하면 首都마드리드市는 左翼黨이 斷然優勢로 大約二

不安과焦燥裡에 選擧期日迫到(二月廿日)

政黨의消長과政局運命左右

各派選擧本部의豫想

【東京電話同盟】選擧民의 總意反映에基하야 各政黨의消長과 政局의 運命을左右할 總選擧期日도 인제 겨우 三日後로되엿다 各候補는 身命을 賭하야 戰線을 馳驅하고잇는데 이때를當하야 政友、民政、國同、昭和、無産各派의 選擧本部에서 活動하는首腦部는 不安과焦燥에 쌓여잇스면서도 自派에對하야 自信과期待와勝算을세우고잇다

勝利를確信

政府演說會開催는窮餘一策

松野政友會幹事長談

岡田首相의 演說에 對하야서도 政府는 最初부터 態度가 一貫하여잇지안흐나 드듸어十七日 日比谷公會堂에서 行하기로 되엿다 此는 選擧情勢가 最初에 豫想한바와 달러서 與黨側에不利하게 展開한까닭에 이에狼狽하야 이가튼處置를 하게되엿슨대 政友會로서는 政府가 인제 如何한 方策을 講究하드래도 늣낫것은업다 我黨의 勝利는 벌서確實하며 政府의 拄持目體에 切迫되엿다 首相의 [illegible]은 擧國一致內閣이 아닌것을 國民에 示한것으로볼수잇다 政友會는 最小限二百三十名內外를 獲得할것이므로 그點에對하야 인제念慮는 안는다 選擧後의 政局에 關하야는 世間에 政民聯立內閣이 되리라고 말하는者도 잇스나 第一黨의 幹事長으로서 어데까지든지 政友會를 中心으로한 內閣出現을 確信하고잇다 但結果如何로 政局이 어떠케動할는지 그것은 判然치 안흐나 大勢가 此를 制하여 가는것이므로 그러한 問題가 나지안흐리라고도 斷言할수업스나 그境遇는 그때에 생각할것이오 只今 그러한생각을 가질必要는업다 大體로 政府는 國民의 信望을 일코 잇스므로 選擧後 未久에 挂冠을 하게될것이다

總選擧를通해서 民心安定에

大麻民政幹事長談

今回總選擧의 結果는 小會派는 問題로하고 政民兩黨이 如何한 戰線을 어들는지 이것이 前提되는것으로 客觀的條件을比較하여보건대

一、民政黨은 數年前에 國民同盟이分裂하야 一派를形成한故로 不利益이나 이것은 數年前일임으로 現在는 그러케問題되지안는다 特히最近有能의士는我黨에 復歸하고잇슴으로 그것은問題업다 그런데政友會를보면 最近昭和會라는것이 分裂되엿다 이것은 큰打擊이다

一、民政黨은 百二十六名의 前代議士밧게가지안허스나 政友會는 二百四十名을 擁하고잇스므로 一見有利할듯이 생각되나 政黨은 統制强化 新人擁立에 最近非常한努力을하야 有利한候補者를 세우기에 成功하엿다 然而政友會는 所謂監軍制度에 頭痛을아르며 黨內鬪爭에 날을보내는關係上 一致的團體的行動을 할수업슴에反하야 我黨은黨內統制가 完全히 確保되야 敏活한行動을할수잇는點이 有利하다

一、所謂肅正選擧에 關하야는 我黨은 多年 主로 言論戰에終始하여오든關係上 金力에依하야 選擧를하여온 政友會에 比하야 肅正을 徹底히하면 할사록有利하다

一、此非常時에 際하야 擧國一致의力에依하야 難局을 打開하려함은 全國民의 輿論이며 過去四年間 我黨은 終始이目的下에 나온態度는 黨利黨略에基하야 行動하여온 他派에比하야 國民의 信望을어들것은 必然之勢이다

一、今回의 選擧를 迎하야 政友會의 態度는 守勢이엿는데 比하야 我黨은 昨年來 理論의筆法으로 必勝을 期하야왓스므로 候補者의活動이 敏活하다 此等諸點을 綜合하면 客觀的으로 我黨은 有利하다 今日까지의 各地方情報를 基礎로생각하면 今日我黨의 當選確實로 보는者는 이미 百九十名에 達하며 當選圈內에잇는 四、五十名을 算하는때 今後 數日間 言論戰에注力하야 非常時打開의 眞摯한態度와 政策을充分히 國民에徹底식히면 勝負의 歸趨는 自明할것이다

與黨情勢不利로 首相、藏相遂蹶起

政府演說會主催는前例업는일

選擧戰最高調에到達

【東京電話電通】現內閣의 擧國一致에對한 國民의 信任을 뭇는 總選擧는 드듸어 最後의 끝을 目睹로 全國百二十二區가다 亂戰、混戰中에 國民의 審判을 기다리게되엿다 이一戰에 非常時局의 安定과 擧國一致 現內閣의 基礎補强을 一擧에 完了하려는 岡田首相은 十七日午後三時 東京 日比谷公會堂에서 政見發表 演說會를 行하고 議會政治의 闘將 高橋老藏相과함께 國民의압에 現內閣의 所信을 述하야 積極的으로 與黨援助의 第一線에 서게되엿슴으로 政戰은俄然 玆에 最高調를 모하게되엿다 岡田首相의 出馬에加하야 財界의長老 議會政治의重鎭 高橋老藏相의蹶起는 民政、昭和會의 各與黨側의 陣營에 多大한活氣를 加하는바되여 與黨側은 이에依하야 一擧에 野黨政友會를 一敗地에 너흐려고 하고잇는바 現在의 情勢로서는 與黨側은 아즉 相當한苦戰을 免할수업고 [illegible] 로도 반드시 樂觀치못할 狀態에노여잇고 首相、藏相의前例업는 政府主催의 演說會를 主催케되것도 要컨대 與黨이 危殆하다는소리가 잇슴으로 政友會에 間接射擊을 할

我黨에有利

社會大衆黨三輪選擧委員長談

今回의肅正選擧는 我等無産黨에잇서서는 조흔일이다 今日까지는 演說會의 動員等이 모다順調로되야 予先이것으로 當選圈內에드러간것으로 보는데 最後의 瞬間에 旣成政黨의 買收라든가 金權濫用等의 行事가 制止될것이므로 肅選이徹底히되면될사록 選擧는 我方에有利히 展開된다 따라서 現在 旣成陣營中에 選擧違反事件이 잇슴에 不拘하고 我黨은 아즉 一人의 違反者도 내지 안헛다 過般府縣議戰의 結果로 보드래도 我社大黨의 進出의 勢는 豫想以上이엿다 이것은 一般이 大衆政治에의理解力이 增進되는證據로 今回總選擧에서도 旣成陣營의 演說會가 不振함에反하야 我社의 演說會는 全國各地에서도 다大盛況으로 入場을 拒絶할地境이엿다 이러케까지 聽衆도 熱心이다 閣內改革斷行의 空氣가 相當히 濃厚하여젓스므로 政策이업는 旣成政黨과는 달러서 政策第一主義의 信念이잇는 無産黨支持에 非常한 熱意를 보이고잇는 審判의 날도 나머지 僅三日뿐이다 政民兩黨은 濫立相喰을演出하고잇다 武器 言論戰으로 最後의突擊을 開始한 我黨의 一大進出이야말로 刮目할만한것이다

安達國民同盟總裁談

國民同盟은 三十五名의 公認候補를 세웟는데 政民兩黨의 壓倒的多數의 候補者에 比하면 [illegible] 現狀으로 多數的으로는 全혀 問題되지안는다 그러나 政民兩黨의 立候補狀態를 보건대 最近그 例를 보지못하는 濫立이다 特히政友會에서 그弊가 [illegible] 有識無識이 立候補한것은 勿論이다 政民兩黨에 比하면 我黨은 數的으로는 縮少되엿스나 極度로 立候補者를 精選하엿스므로 三十五名이 모다 一人一人 [illegible]하다 現下政局 及總選擧에 關한 政策을 豫想하야 數보다도 質을 主眼으로한것이 同盟의 方針이다

政戰數日의今日에 이르러 新聞社를 爲始하야 各方面에 皮算用을 始作하는것이 定例이나 이것이 마즌적은 아즉한番도업다 特히今回와如한 統制되지못한 候補濫立狀態로는 當選豫想은 一層困難하며 또不可能한 狀態임에 不拘하고 旺盛히 皮算用에 着하는것은 政黨을爲始하야 我國有識方面에서 現狀이 前과 根本的으로 다른것을 아즉아지못하는 證據이다 今日政局은 勝敗가 그러케 重大한影響을 波及하는것이아니다 따라서 一政局도 一政黨의 數的增減에의하야 根本的으로 左右될것이아니다

英國極東軍備擴充

廣東政府와는利權獲得交涉을開始!

關係方面、事態重大視

【東京電話電通】英國은 西國軍縮會議의 成功에 反間苦肉의策을講하는反面 未曾有의 國防强化計畫에 出하는 奇怪한態度에 出하고잇는데 某所에 들어온情報에 依하면 英國이 新嘉坡、香港等極東方面의 軍備擴充을計畫함에 이른것은 다음과 가튼根據에 基因되는것이 明白하다 卽太平洋方面에는 現在中心勢力이어업고 中國은 混亂狀態를繼續하며 蘇聯은 赤化運動의擴大强化에 努力하고 日米兩國은 非聯盟國임으로 聯盟依存主義에依하야 英國의 極東權益擁護는 不可能케되엿슴으로 獨自의 實力으로써 貿易의進展과 極東에서 가지고잇는權益의 擁護와 增大를遂行함에必要한 軍備充實의 必要가잇다라는것이다 그리하야 그中心根據地로서 香港을 擇하야 香港政府에 必要한 利權獲得交涉을 廣東政府에 對하야 開始하고저하는 形勢가 보임으로 日本關係方面에서는 英國의 今後의 動向을 重大視하고잇다

第三國의介入 外務當局反對

【東京電話同盟】金廠溝事件에關한 十四日의 太田、스토모냐코프會見內容은 十五日中 外務省에는 公電도到着치안코 事態가判明되지안엇스나 莫斯科來電이 一致하야 蘇聯邦의 要求項目으로서 第三國人을 混合調査委員會에對한 第三國人介入을 내걸고잇는것으로보아 第三國人問題의 提唱은 大體로 眞實한것으로보고 外務當局은 이에對한 態度를 左와如히 表明하고잇다

一、日滿蘇三國現地混合調査委員會에對한 第三國民의 介入식히는것은 何等의意味도 업슬뿐만아니라 [illegible] 가 第三國人을 介入식힘으로 도리혀 [illegible]

一、蘇聯이 새삼스레히 第三國人의介入을 要求하는事實은 極東國境에잇서서의 不安을 國民에 喚起케하는 一方 世界의 注目을 蘇滿國境問題에 集中케하려는것으로 金廠溝事件의 圓滿解決을 企圖하려는 友好的 態度라고는 할수업다

一、現地調査는 紛爭事實의 眞相을 明白히하는일이요 다툼은 目的이 아니다 오즉 事態를 明白케 하는것이 主眼이다 따라서 第三國人을 너허 仲裁裁判에 附함과가튼것은 到底히 생각할수도업는 異論이다

政友、第一黨乎

與黨다合해서야過半數될듯

【東京電話同盟】政戰이 끝날이 마스에達하야 八百七十八名의 立候補者는 全國百二十二의選擧區에서 最後의榮冠을 獲得하려고 戰陣을擧起하며 到處에서激戰 混戰을演出하고잇다 十六日現在各派黨籍別候補者數와 當選確實한者

政友會	百六十名	九十三名
民政黨	百五十三名	八十名
昭和會	十六名	十三名
國民同盟	十一名	八名
社會大衆黨	七名	九名
諸派	一名	三名
中立	五名	二十一名
合計	三百五十三名	二百二十七名

이며當落의 苦境에서相爭하고잇는者으로 그中 何黨이나 當選할수잇는가 합에依하야 어느黨派가 第一黨이 되든지 그것이 決定될것이어니와 如何間 政民兩黨이 絶對過半數를 어들수잇다 그리고 當選圈內에잇는 政友 民政 昭和 國同 社大諸派候補者中 一率로五割當選者를 넣수잇다고하면 政友四十七名 民政四十名 昭和六名 國同四名 社大四名이되고 여기다 中立諸派로부터 數名의當選者를 엇게되면

政友會	二百七名
民政黨	百九十三名
昭和會	二十二名
國同	十五名
社大	十一名

이되야 依然政友會가 第一黨을 占하야 政府支持側은 民政 昭和를合하야 겨우政友會를 凌駕하게될것이다 여기中立其他 政府支持派를 너어 겨우 過半數의 程度를 엇게되므로 右와如한結果라하면 政局은 依然不安하야 自然强硬한 分離工作等이 惹起되야 肅正選擧의 못드는期待에 어그러지지나안흘까 하는憂慮의傾向도잇다

昭和會樋口典常氏談

昭和會는 前代議士二十四名을 加하야 四十六名의 候補者를 公認하엿는데 選擧에 當하야 選第一主義에서 될수잇는대로嚴選한것으로 [illegible] 昭和會는 인제誕生되엿슬 뿐으로따라서 民政黨이라든가 政友會와如한 一定한 地盤이 잇는것이아니므로 相當히 困難한 立場에 잇스나 選擧의方針으로서는 去一月二十一日 議會解散當日에 發表한 昭和會의 結成聲明書에基하야 全力을 言論戰에 注하고 堂堂 戰鬪할決心이다 選擧結果如何는 勿論豫斷을 不許하나 國民大衆의 公正한批判은 반드시 我黨昭和會의 正當한 主張에共鳴할것이라고 確信한다

實行豫算은 多少減額

◇今井田總監談

【釜山電話電通】實行豫算打合키爲하야 渡東中의 今井田總監은 官民多數의 送迎裡에 十七日朝釜山에上陸하야 同七時發急行列車로 歸任하얏는데 棧橋 貴賓室에서 少憩中 左와如히 말하얏다

實行豫算編成打合키爲하야 渡東하얏는데 特別議會에는 大體本年度要求豫算과 同額을 提出하야 協贊을 어들豫定이다 多少의 自然減少는 免치못하나 豫定의 事業遂行에는 支障이 업슬것이다 鮮滿拓殖會社에 對하야는 目下着着進捗하야 八月頃에는 創業豫定인데 會社首腦部의 人選에는 아즉 着手치안햇다 初等敎育의 普及擴充은 十二年度부터 十個年計畫으로써 第二次運動에 드러가는데 義務敎育問題는 그뒤에 올것이다 內鮮航空連絡에 對하야도 目下準備를 進行하고잇으나 그러나 飛行場으로 適當한것이 업슴으로 이것부터 着手치안흐면안되겟다 日本內地는 總選擧로 大端喧騷하며 肅正의 소래가 노파서 자뭇 選擧의 소래도 못하는모양인대 이點은朝鮮이 편하다

滿鐵線一元化에 朝鮮鐵道包含

近日朝鮮總督府에提議

【奉天十七日發電通】滿鐵改組의 根幹인 全滿鐵道機構一元統制計劃은 目下現地의 關係各機關에서 銳意實行案을 作成中이어니와 有鐵道機構一元化는 所謂大陸政策의 確立으로 그硏究進行에 伴하야 最近各機關首腦者間에 朝鮮鐵道를 除外하고는 目的을達하기 어렵다는 意見이有力化하야 注目되고잇다 即右大陸鐵道政策은 日本內地와의 連絡性이 一重點이 되는데 朝鮮經路는 大連及日本海兩經路에 比하야 軍事的經濟的 見地로서 大陸幹線經路로서의 條件을 完備하고잇다 따라서 朝鮮鐵道를 大陸鐵道빨락에 包含하여야한다는데잇는데 그實行方法으로서 鐵道移管或은 委任經營等은 쓸데업시 問題를 複雜化하는것으로 此際에 朝鮮鐵道의 根本的組織改革等의 問題에 不觸하고 運賃協定 稅關事務撤廢를 爲하야 單一化하고 다시 朝滿鐵道合同配車에까지 나가 實質的으로 大陸鐵道로서 이 連絡運用을 圓滑化하면 足하다 따라서 同問題는 全滿鐵道機構統制가 進展되면 朝鮮總督府에 對하야 正式으로 提議될것으로 觀測되는데 一部에 朝鮮鐵道移管說이 唱導되는此際에 右와如한 意見擡頭는注目된다

人事·集會

◀趙元顯氏(江華郡守)本社江華島附近飛行에對한謝禮次來社
◀李秉鉉氏(江華府內面長)同上

八面錄

◇ 汎米會議、正式으로 招請狀을 發送했다고、米政府가 公表。

◇ 西半球에 演劇一幕이 또 벌어젓구나 하는格으로 짐작이나하여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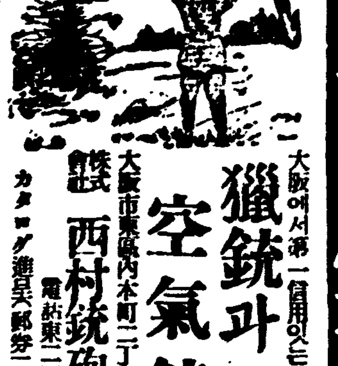
◇ 八百七十八名의 候補者가 全日本國民의 審判을 바들날도 二三日로 迫到했다。

◇ 岡田首相과 高橋藏相이 街頭演說을 하는것을보면 與黨의 陣勢가 虛弱도한듯。

◇ 候補時代의 政策과 代議士時代의 政策이 마음대로 變하는것으로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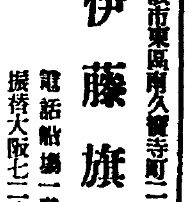
◇ 總選擧後의 離合集散을 생각한다면 政局의 將來도 豫斷은 禁物。

大阪着名問屋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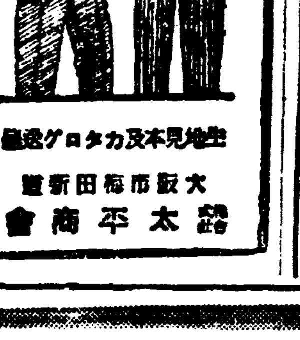


大阪에서第一信用잇는 獵銃과 空氣銃 株式會社 西村銃砲店 大阪市東區內本町二丁目 電話東二四六〇 (カタログ進呈)

國會各國 附屬品一式 旗 國旗 卸商



(カタログ送呈) 伊藤旗店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 電話船場一參四五 振替大阪七二八四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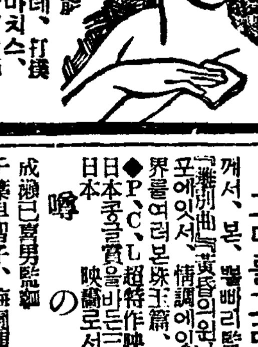


全鮮에서놉흔名聲과함께 品質優良으로風靡하는ゼスター 高級 萬年筆을卸廉價提供 大阪市北區菅原町五丁目 澤井商會製作部 電話東七九〇九番 振替大阪二壹二六四番 (新版カタログ送呈)

小間物 雜貨卸 馬場惣 合名會社 均一品豐富、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丁目 振替大阪八〇八二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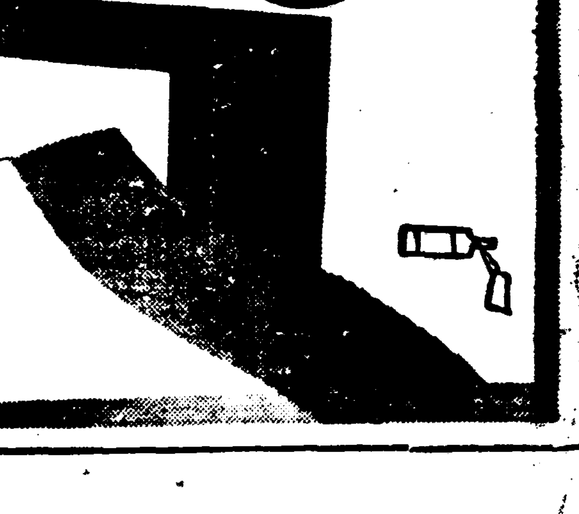
世界號 機械製繩式屋寶 天下一品 全完經驗로置裝入 五尺一徑直鼓大 附屬品一切附 十圓金價特店約特 本機는自働工 上等木臺附 無欠 大阪市西區南堀江通三丁目二七 寶屋農具製作工場 (特約店募集) (型錄呈) 電話櫻川二九五三・參〇九七番・振替大阪二四八五二

國產最高タングステン鋼製 刄鋸切金 タイタン印 大阪市西區新町通四丁目三十 福住商店 (カタログ呈) 電話新町四六五六番



優勝旗 校·會·旗 青年團旗 附屬品一式 正式國旗 青年學校旗 專門問屋 大阪市東區松屋町 上田旗店 カタログ進呈

各種 作業服 見本下旬에發行 乘馬ズボン、長ズボン 作業服上下オーバ 青年團服其他裁縫品一式製造卸屋 合資會社 西村直商店 大阪市東區本町 電話南六〇二七・九二 振替大阪六〇二九二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二月十八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廿分
◆東和商事提供 佛國아리스超特作映畫 世界的歌姬요세핀베카 舞踊家인 黑人조세핀·베카 主演 카메라監督第一回作 裸體의女王 말·아레그레監督作品 映畫팬을꿈거리에 뒤흔든 가장 華麗한 世界에 妖艶의 亂舞、노래와춤의饗宴、雅致의頂點!
◆東和商事提供 獨逸토비스特作映畫 巨匠、우리·폴스트佛監督으로서 마다슈나이다와演出 그대를그리우며 「維也納의甘い」「黃昏의別れ」의名篇은 이것! 포에잇서、情調에잇서、별다른世界를보여준珠玉篇!
◆P.C.L超特作映畫 日本映畫로서代表的名篇 噂の娘 成瀨巳喜男監督 千葉早智子、梅園龍子 主演
全鮮第一 映畫殿堂 團成社 電光 九九九

二月十八日부터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 續映 入場料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上 大人四十錢 小人三十錢
東西二大特秀作品封切 高麗키네마製作「강」映畫 原作 申鄕午、監督 安鍾和、撮影 孫勇進 강 映畫로서 興行價値百%에 大發展
朝鮮初有의「강」映畫 逆襲 新鮮한警察의大活劇으로 강을 逃捕한 戰績出場人員二千名의大陣容!!
廿世紀FOX社超特作全發聲 日本版音樂映畫 監督……엘스타킹 戀のセレナーデ 빗든·빠르슨、날스·아스라 主演 사랑의魂을 高潮시키는 精進名曲 純情!樂聖슈벨트의秘戀의一代記!
次週 주나브大活劇 次次週 明朗映畫 스차일드全部二十錢封切
仁寺洞 朝鮮劇場 電光 三八六

二月十七日 書間부터 三日間公開 每日三回 晝夜興行 夜間七時半 午後十二時부터 二回 午前十時부터 大衆料金 階下十五錢 階上二十錢
佛國빠데社超特作全發聲 장·크레미용 監督 父性劇 안오는아버지 一名(父歸らず) 主演 밍·알드베르 子息을爲하야싸우며 애탄한피눈물로 짜어내는 悲劇 이보다더 어려운 悲痛...아비되신분도보시라 此一篇을
JO太秦發聲社特作品 海東省後援木富映衆郎監督 明朗 爆笑劇 俺は水兵 御家人勸 主演 丹 부라운의 拳鬪 와ー나ー부라더스社特作品 로이헬릭ㅡ스, 主演 朝 조ー이ー부라운 主演
書劇 王中王、戀ノ一夜
電話光化門 一二二番 鍾路四丁目 第一劇場

二月十七日부터 特別公開 特別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一流名畫
修正版 킹·콩 巨匠 세실B·데밀氏監督指揮 桃色銀幕을자랑할特選名畫大會 파라마운트社超特作映畫 天然色 킹 구·오프·킹구 (王中王)全十八卷 世界的巨星…엣치·B·와―나氏 主演 예수그리스도一生受難史
主演 女優 四十名 男優 五十名 俳優 二〇〇餘名 全製作費 五〇〇萬圓 製作日數 十五個月 約二千年前羅馬帝國을背景으로한 映畫는男女老少누구나 한번식보아두지안으면안됩니다!
◇東京푸로덕슌作品映畫!! 現代特作劇 名譽의警官 ◇스탄·부라샤 主演 ◇東西映畫 寫劇 離婚騷動 主演……잘스라ー몬도氏
鍾路四丁目 電話光化門 電光 一三六 桃花劇場

제·엘·세브란쓰氏

恩愛는太平洋을너머서
大"세부란쓰"家族
連綿花、또最後의"써-비쓰"
"제"氏遺言으로卅三萬圓寄贈

「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 교주 「루-이·엘·세부란스」씨는 지난 — 로 미국오하이오주 「클레베」 고「엘에취·세부란스」씨의 아 — 일백세를 일기 — 분지에서 이세상을 떠낫는데 그는 그의사재중 십만여원(?) 약삼십삼만원 가치의 토지와 주식(株式)을 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긔본금으로 긔부하라는 유언을하엿다는 통지가 십륙일 아침편으로 방금 사가귀국중인 그학교외과교수 라도로(羅瀾)씨로부터 그학교에드러와서 학교당국자와 학생일동은그의꾸준한호의에여간감사하는바아니라한다 그리고「째엘세부란스」씨는 이학교창립후 삼년동안가량빠지고 꾸준히 일년에일만오천원달라식이학교에 긔부하여오든터이라고한다

金元鳳、部下시켜
滿洲서軍事敎鍊
南京軍官學校出身卅名潛入
朝鮮青年을料合訓鍊

작년 서대문 경찰서에서 송국한 공산당재건사건(共產黨再建事件)의 배후지도자의 한사람인 김원봉(金元鳳)의 그후소식은 묘연하든차 채근모처에 드러온 정보에 의하면 김원봉은 그후원의렬단(元義烈團)원 을재차모집하야 만주모처에서 남경군관학교를 졸업한 조선사람약 삼십명의 지도하에 특별군사훈련을 개시하엿다 하는데 시절이시절이니만-큼 이소식은 자못주목된다한다

病菌蠢動期따라
府、傳染病防禦布陣
千二百萬圓드러卅五萬名에注射

전염병도시의 별칭이잇는 경성부는 해마다 새로운 방역진지기에노력하는중 금년에는련접지군부출균합한 대경성을 형성하게됨에딸하 일층방역에 주력하여야될뿐아니라 작년중은평년보다전염병이류행이나 증가하여발생환자는 장질부사의 일천륙백칠십명을비롯하여적리(赤痢)오백삼십오명 파라티부쓰 이백삼십명등으로그중에도 무서운것은 장질부사와파라티부쓰인데 겨울동안추이에 옹크리고잇든균이 봄에나가서 번듯이굉장히 발호할예상임으로 미리예방키위하여 경성부위생과에서부터 벌서부터대방역진을치고잇다 즉오는사월중장질부사와 파라티부쓰의 예방주사를 삼십오만명에게 각이회식 칠십만명에 대하여 하기로하야 일만이천원의 예산으로준비중으로 이에의하면 칠세미만의 아동과 칠십세이상의 로인과 병자를제한 전반부민에게대개실시될 예정이다 특히주의해둘바는 장질부사는 건강한사람에게도 균이 잠복하여잇서항상 대변에가운데 석기어 루포되고잇서서 누구나 주사를 마저두어야 한다는것이다 보균자(保菌者)는 건강보균과 병후보균의 두가지가 잇서서 담낭(膽囊)가운데 균이 들어잇는데 경성부민의 통계를보면 천명에이십명의 비례임으로 사십만명으로치면 시내에 보균자가 팔천명은 잇슬터이니 봄부터 가을까지 그들 팔천명이 균을산포한다면 전시중은 장질부사균이업는곳이 업는형편이 될터인즉 일반은 봄에나가서 장질부사주사를 받듯이 마저야 할바이라 한다

猩紅熱
府에서無料注射

일월이래 시내의전염병 발생상황을보면 일월중에는 각종전염병이모다 자최를감추엇고 특히류행되던 성홍열(猩紅熱)과 지프테리아도 류행이 끈어저서 어린애기를가진 가정이모다 안심하는상태이더니 이월에 들어서 돌연 전과두가지 병마가 엄습하여 벌서 성홍열이십륙명 지프테리아가 십칠명 이나발생하엿고 앞으로도 더옥창궐할 기맥이보이어 신중히 경계할바인데 이두가지병에 대하여서는 각히조흔 예방주사약이잇서 효력이신효한터이나 일반이 아직알지 못하여 충분히 리용을 못하고잇는 모양이라고한다 그주사는 현재 경성부 위생시험소에서무료로 시험중임으로 어린애기를가진가정에서는 조금도 주저말고 경성부의 위생시험소에서예방주사를 맛도록함이 조켓다고 경성부 위생과에서 열심히 말하고잇다

洋服窃盜指名手配

시외한지면 신당리(漢芝面新堂里) 이백삼십삼번지의십오 상범 이규환(李奎煥)(?)은 지난 십이일 오후다섯시경 삼판통(三坂通)일백이번지 평류금태랑(平柳金太郎)에집에 드러가 양복두벌과 도큐구두한개를 절취하고갓는데 아즉 체포치못하야소관 룡산서에서는 시내각경찰서에 지명수배중이라 한다

京城行急行列車
羅南附近서脫線
人命은無事、自動車로臨時連絡

지난십륙일 오후두시십오분에옹기(雄基)를떠나 경성(京城)으로향하야 출발한 오백팔호렬차는청진(淸津)거처서 진행 하든중오후 열시삼십사분경에 라남역(羅南驛)에 못미처기삼킬로의 지점에서 돌연 기관차와 객차가 탈선을하야 위험에 빠질번하엿스나 다행히 기적적으로전복이되지아니하엿고 승무원과 일백이십구명이나되든 승객은 다행히 별고업섯다 그러나 탈선때에 입은 선로의파손으로 당분간 기차는 불통상태가될것이나 라남과 강덕(康德)사이는 자동차로 강덕과 청진사이는 림시렬차로 련락을하리라한다

賭博꾼一束

지난십오일밤 두시경 룡산서원이 금정(錦町)내를 순찰중 이동리오십칠번지 배인성(裵仁成)의집에서 집주인과 금정(錦町)이십구번지 리석근(李石根)동오십오번지 최명룡(崔命龍)동륙십칠번지 조순남(曹順男)등이도박을 하는것을잡거하야 방금 룡산서에서 취조중이라한다

京城驛은서러운곳
낼마다 移民列車
燕岐、長水等三南各地에서
樂土(?)차저北으로移住

정든고향에는 봄기운이끄러오르건만 살길을차저 락토를뒤로두고 북만주로 떠나는삼남(三南) 동포들이 요즈음 매일가티 떼를지어 경성역을 통과하고잇다

십오일 오전일곱시 이십오분 부산(釜山)을떠나 경성역에 도착한 제 오렬차에는 경남밀양군 무안면(?)(慶南密陽郡武安面)에서북만주 적암(赤岩)이란 지방으로 살려간다고 열두가호의 남녀로 유 사십륙명이 이날오전 여덜시이십분 경진행(京津行)렬차를 기달이엿다가 타고 가버리엿고 또 이날밤 일곱시삼십팔분 부산을떠나 경성으로드러오는 제 삼렬차가 룡산역에 도착할때에는 전북장수군계북면 (全北長水郡溪北面)에서 합북계림탄광(?)(鷄林炭鑛)으로 일하려간다고 남자 여섯명 녀자두명 어린아해세명 합 열한명이 방열하시 집운청진행렬차를 기달이엿다가타고가버리엿다

경성렬차구(京城列車區)원에말을듯건대 요즈음 경의선(京義線)과 경함선(京咸線)에는 매일이주민(移住民)들로북잡을이룬다하며 조선에 농터의농사는 누가짓는냐고 뭇는과자에게 도리혀 질문까지하엿다

봄은感傷的!自殺流行

疑問!春雪을깔고
鐵路에處女屍體
점심을싸든것이어나곳女工인듯

[仁川] 지난십칠일 우각리(牛角里)선로에 어느때죽은지모르는 이팔처녀의시체가 선로우헤가로노여잇슴을 순행순사가발견하얏다는대 점심변도그룻이잇는것을 보아 직공인것갓다는대 사람을 치운렬차가아모보고도업시 사고가어느때이러낫는지도모르는 철도국비란한다는바 자살자의신원은아즉미상하야 조사중이라한다

漢江에女子自殺屍

지난십오일오후다섯시경 시외룡강면동막상리(龍江面東幕上里)칠백구십오번지압 한강에 약삼십세가량되는 녀자의 익사체가발견되엿는데 소관룡산서에서 검시한결과 자살로 판명되엿는데 이제 그원인을 알어보면 그녀자가 월경대를하고잇는 점으로보아 발작적이아닌가한다

겨울도다갓는데
때아닌凍屍

지난십오일 오후세시경 시내원정(元町)풍국제분회사(豐國製粉會社)뒤 「콩크리-트」다리밋헤 변사체가 잇섯는데 검시결과 약식에 동사로 판명되엿스며 약 쉰세살가량되는 노인이라한다

松の實キャラ

春雨첫訪問
봄비는도적가치
어느듯눈으로變裝햇다

십륙일아츰 다섯시쯤경성지방에는 이봄마지며 처음보는가랑비가 내리더니 별안간 끄치며 일긔가 개이고 따뜻하야 한낫계의 수은주는 구도이분까지 뛰여올러 한겨울동안 죽은방에웅조러저잇든 일반시민은 거리로 교외로 몰려나와 멋처룸 봄볕의 하루를 향락하엿다 저녁일곱시반 부터 또다시 비ㅅ발이 던지다가 십칠일 새벽세시에는 제법소리를치며 쏘터지드니 네시반에는 눈으로 돌변하야 열시경에는 함박가튼눈이 퍼부어 십칠일아츰 열시까지에 비가 륙·미리(?)눈이 「센치」반가량와서 이것은 황해도(黃海道)와 강원도(江原道)해안에 비껴잇는 저긔압의 불련속선(不連續線)관계로서 명일에는 북서풍이불며 좀치워지나 날세는회복되리라고한다

天氣豫報

적은低氣壓은 黃海、江原道沿海와 北海道地方의 南西轉上에잇고 不連線을껴안고잇스며또 石垣島의 南쪽과 九州地方의 西南海上에 低氣壓이잇으며 高氣壓은 中國蒙古로부터 滿洲、朝鮮에 퍼저잇다 滿洲는개이며 朝鮮은 흐리고 中部地方에는 降雪이잇다

豫報 今夜 京城地方은 흐리며 京畿道全區도갓다 明日京城地方은 北西風이불며 치워진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零下九度
最低	零下○度
今朝 最低	零下○度
正午	○度

定平農組事件
六十四名에言渡
最高七年으로부터비롯하야
執行猶豫不過六名

긔보=지난십일 구형이잇슨 정평적색농조(定平赤色農組)사건언도공판은 십칠일 오전열한시십분부터 개정되엿다 약사십분동안 재판장의 론술이잇슨다음피고륙십삼명에 대하야 각각다음과가튼 언도가 잇섯다 ▲韓永九七年▲李在弼七年▲韓承鎬四年(未決通算三百日)▲李甲燮四年 ▲崔豊烈六年▲韓泰運五年 ▲李譜善一年半▲韓桂乙二年 ▲韓佳輝二年▲韓泰銀二年半▲金光洙二年▲車南軒二年▲元鳳吉二年▲徐洪範二年▲金鳳淵(?)二年(未決通算四百七日)▲金東華(?)二年半▲李春宗(?)三年 ▲李華林(?)二年▲金淀觀(?)二年▲金鎭漢(?)一年半 ▲李道林(?)二年▲李喜燮(?)二年 ▲全載三(?)一年半▲全成俊(?)二年▲韓興國(?)三年 ▲張觀淳(?)二年 ▲韓東燮(?)三年半▲韓鳳瑞(?)二年(三百日通算)▲韓泰國(?)二年 ▲韓養濟(?)一年半 ▲韓泰鏞(?)二年▲李宗善(?)二年 ▲韓承源(?)二年 ▲韓殷錫(?)二年 ▲韓一相(?)二年 ▲韓周松(?)一年半 ▲韓國模(?)二年半 ▲韓泰崙(?)三年半 ▲李心赫(?)二年半▲全榮一(?) 四年間執行猶豫▲李在春(?)▲韓七錫(?)以上懲役一年半 (執行猶豫四年)▲曾允(?)懲役一年半(執行猶豫四年)▲韓念植(?)▲韓肯孝(?)以上懲役一年半 (執行猶豫四年)▲韓源澤(?)懲役一年半 ▲姜信奎(?)懲役二年▲李東錄(?)懲役一年半(未決通算三百日)▲李演模二年 ▲全泰鉉四年 ▲金現模四年 ▲元仁協一年半(執行猶豫四年) ▲張輪源三年 ▲金東輝二年 ▲高宗元二年 ▲千玉金二年 ▲鄭斗杓二年 ▲柳成庸二年 ▲申榮秀二年 ▲元鼎貞二年半 (九十日通算) ▲金龍濟 一年半 (執行猶豫四年)▲金相文一年半

이상피고중 룡사자백일과 구십일의 룡산(?)업는 피고에게는 모다 이백오십일식을 산키로되엿다

第四回 冬季올림픽 (最終日)
平和의戰爭!
莊重한閉會式
各國代表選手參列下에擧行
連十一日間空前의盛況

[電通特派員發] 지난二月六日부터 十一日間을繼續한 平和의戰爭도 이제는終幕을 告하야 南獨의 「가르밋쉬·파르텐키르헨」의 거리는前과가티 閑寂하기짝이업다 十六日午後四時半에 各國選手는 式場「스케-트·스타디엄」東側廣場에 集合하야 午後五時十五分에 入場式 同樣으로「…타임」에 入場하야 式場에 따라 올림픽組織委員會(?)…男爵으로부터 賞品授與가잇슨 同組織委員會會長「리타-·폰·할트」男爵南氏는 各國選手가 가지고잇는 各國國旗에 第四回올림픽大會參加記念「리본」을달은다음 最後로 올림픽大會會長「라투르」伯爵으로부터 閉會辭가끗나자 殷殷한砲聲소는全世界의젊은이들의피를끌케하엿다 이리하야 올림픽聖火는 꺼지고 五輪의 올림픽旗는 내려지니 뜻하지안엇든 十萬觀衆의 歡聲은 놉하저잇섯다 올림픽選手一同은 勇壯한 올림픽行進曲에 步調를 맛처가며 靜肅하게 退場하니 南獨逸에 黃昏의 帳幕이 大地를 덥흘때 歷史的第四回冬季올림픽大會는 大盛況裡에 終幕을 告하엿다

各國得點順位
諸威國優勝

[同盟特派員] 第四回冬期올림픽大會는 十六日의 「스키-점프」로서 終了되엿는데 諸威는總得點九十九點으로 斷然列國을 壓倒하고 優勝하엿고 二位는依然四十七點의獨逸이차지한바 各國의得點順位는다음과갓다

◇選手權獲得圖 ▲諸威七種目 ▲獨逸三種目 ▲瑞典二種目 ▲芬蘭 墺太利 英▲國 米國 瑞西各一種目

▲1諸威九九▲2獨逸四七·四▲3瑞典四二▲4芬蘭三九▲5米國二點二分之一▲6墺太利二六點二分之一▲瑞西二〇▲8英國一五▲9匈牙利七▲10佛蘭西四▲10체코스로바키아四▲10和蘭四▲10加奈陀四▲14日本三▲14伊太利三▲14白耳義三▲17波蘭二 (電通發電에依하면 日本은十五位)

하키-英國優勝

[가르밋쉬·파르텐키르헨十六日電通特派員發] 第四回冬季올림픽大會 아이스·하키-決勝리-그戰의結果 英國이優勝한바 各國戰績은 다음과갓다 ▲英國 二勝一無勝負▲加奈陀 二勝一敗▲米國 一勝一敗一無勝負▲체코 三敗

스키-·점프成績

[電通特派員十六日發] 第四回冬季올림픽大會最終競技인「스키-점프」競技는 十六日午前十一時부터 開始되바 第一位는 諸威 삘겔·루-드(諸)가 獲得하엿스며 日本伊黑選手는 第一回에 七四米五〇、第二回에 七二米五〇으로第七位를 占하엿다 ▲1삘겔·루-드(諸) 得點二三〇·七 七五米 七六米▲2에리크·센손(瑞典) 得點二二八·九 七四米 七六米▲3알델센(諸) 得點二二一·六 七三米 七五米▲4웰벨그(諸)▲5말룰스(波)▲6…▲7伊黑(日)▲44安達▲45龍田(日)▲31宮島

淺田飴
아사다아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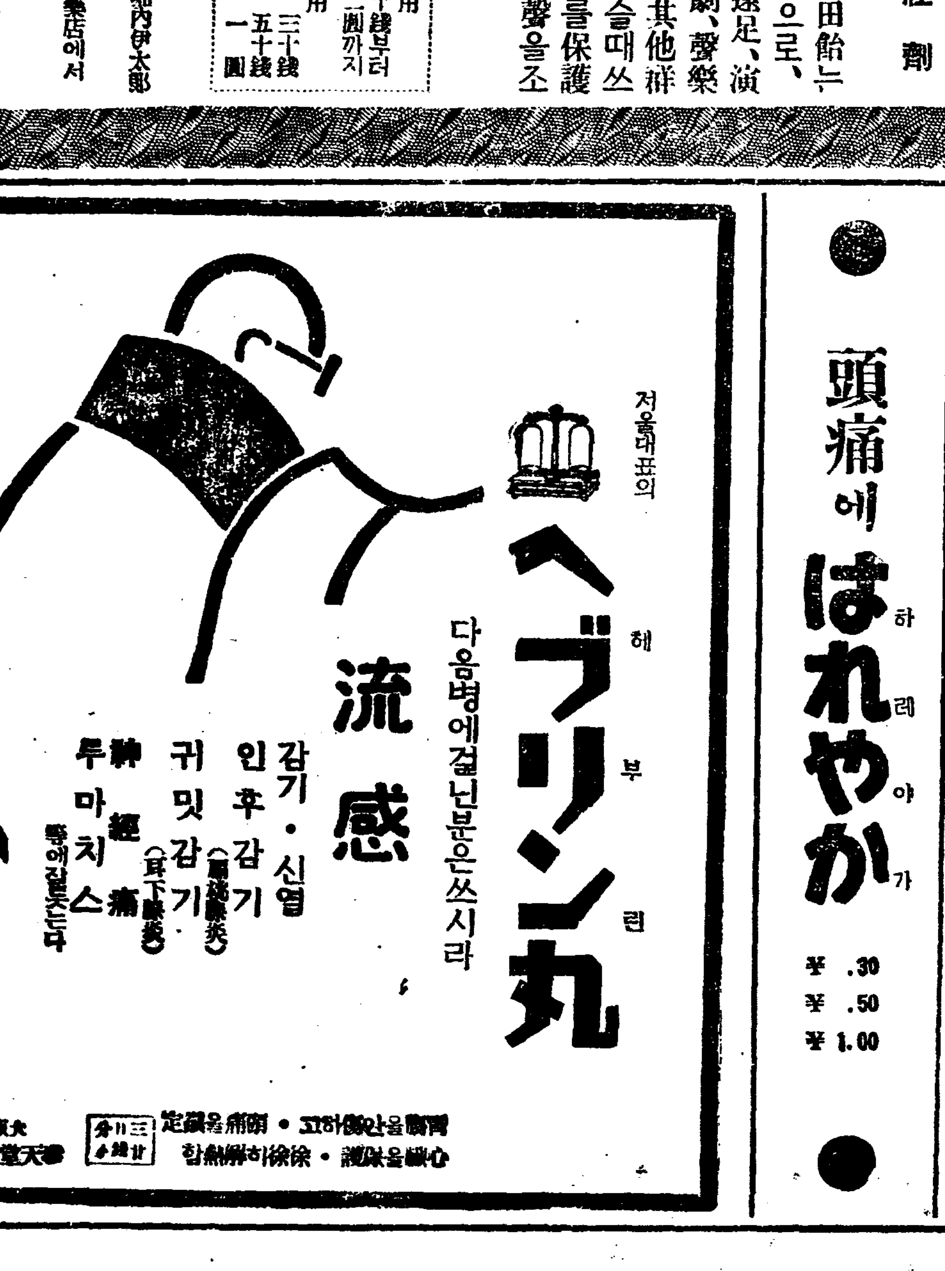
기침一切
感氣
喘息
咽喉不
調한人

老人小兒의
補血滋養
强壯劑

固形淺田飴는 携帶用으로、旅行、遠足、演說、觀劇、聲樂、事務、其他群中에잇슬때쓰면咽喉를保護하고音聲을조케함

定價	
家庭用	二十錢부터 二圓까지
携帶用	三十錢 五十錢 一圓

本舖 東京 大阪 堀內伊太郎
全國各藥店에서販賣함



서울대표의
ヘブリン丸
헤부린
다음병에걸닌분은쓰시라
流感
감기·신열
인후감기(扁桃腺炎)
귀밋감기(耳下腺炎)
神經痛
루마치스
腎臟病
매약을대표한는다
賣藥 南部朝鮮·고하인을하 總販賣元 京城府 ...
大阪北浜 塩野義式會社

頭痛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 .30 ¥ .5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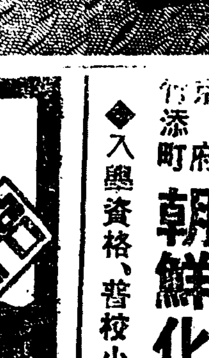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利益만은本業副業으로男女小兒도適當한職業間自宅에서휴업도업고實行한수잇는職業、藥、年中無休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大阪天王寺區堂ヶ芝町 福榮本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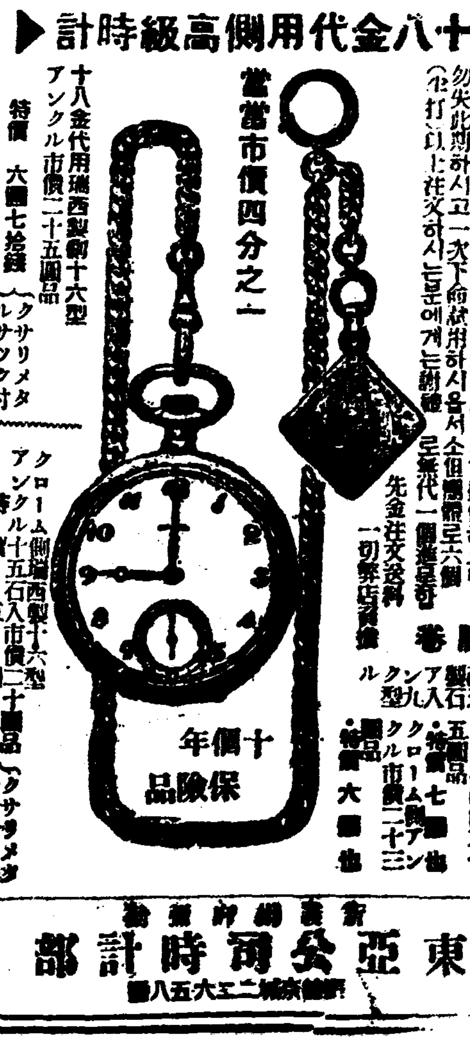
置配員增大給女人美數多
場酒ルリグ保來
鍾路二丁目末保빌딩.電光639
京城太平通 新築開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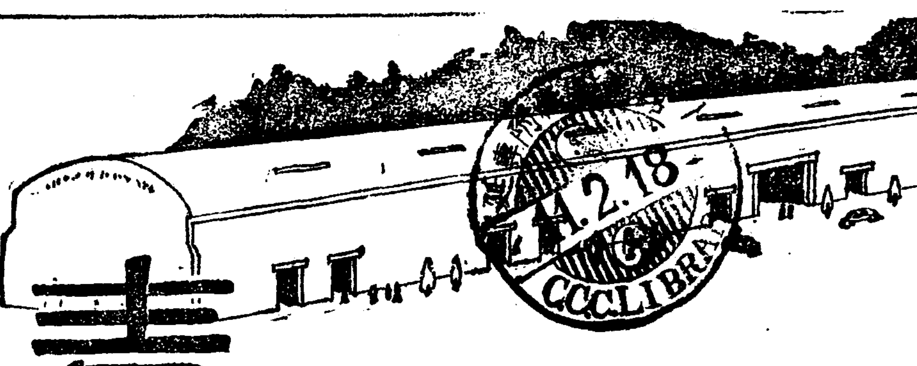
辭典拾冊 合本 タバの一圓
各冊分は十五錢

殘本處分 大投賣斷行
一冊宛の分賣は各冊五十錢前金に限る
特別景品 模範日記 無代進呈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化粧品科、石鹼科、全般技術責任付敎授、卒業後朝鮮滿洲開業自由
◆入學資格、普校小學校卒業程度以上、化學得業士稱號認許特典有
京府 竹添町
朝鮮化粧品製造法講習所
學則要 郵券二錢

朝鮮唯一
認可電醫

三週年特典生募集
◎物理醫療士責任敎授
最新物療全科敎授院長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朝鮮에도近近取締規則이發令되다하니無試驗으로開業資格을어드라는者는速히入學하라本院卒業生은醫師同様에尊敬을受하고皆成功함
希望者에게는學則、內容書送呈、葉書로申込하라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丁目二四四番地 朝鮮高等物理醫學校創立事務所 永樂町岩永醫院側

▶十八金代用側高級時計◀
當當市價四分之一

○滿洲事變當時의案外的商館에서特價로分讓하는것이와다가今番開業十個年을自祝코저諸位의게提供하오니勿失此期하시고一次下命試用하시옵소서又保證書를但添附하여드리고(不打)以上注文하시는분에게는謝禮로無代一個進呈함
十八金代用瑞西製第十六型 アンクル 市價二十五圓品 特價 六圓七拾錢 クサリメタルサック付
クロー ム側瑞西製十六型 アンクル十五石入 市價二十圓品 特價 五圓也 クサリメタルサック付
腕 ... 特價 七圓也 特價 大圓也
先金注文送料 一切弊店負擔
十個年保險品
東亞公商時計部 京城府... 振替京城二五六八番



11.2.18 C.C.C.LIBRARY

靑春의부드런살!!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살으르 부드럽게 살속으로 다 녹어들어
아름답고 優雅하게 若肌를 맨들어내서
살안것철게하야化粧下에 第一이지요!!

忍節子「이따ー크스레ー지는굉장한데요、이것은、참으로東洋第一이래요여기서 東洋第一의레ー도로 멕크압하야 東洋第一의映畵를맨들어내지요光子짱」

東山光子「정말、그러기에이번은 내의感情山脈이 全東洋第一의人氣라지요。그近代的感覺에 꽉맞는래ー도化粧한덕택이지요」

大船のスターはレートがお好き

大懸賞三百萬名의總當籤・〆切二月末!

三宅邦子「곳모닝이…조석조흔日氣인데요 只今나의若旦那百萬石의試寫래요、나의유모아한模樣을보시요、레ー도白粉의볼속하게自然스런메크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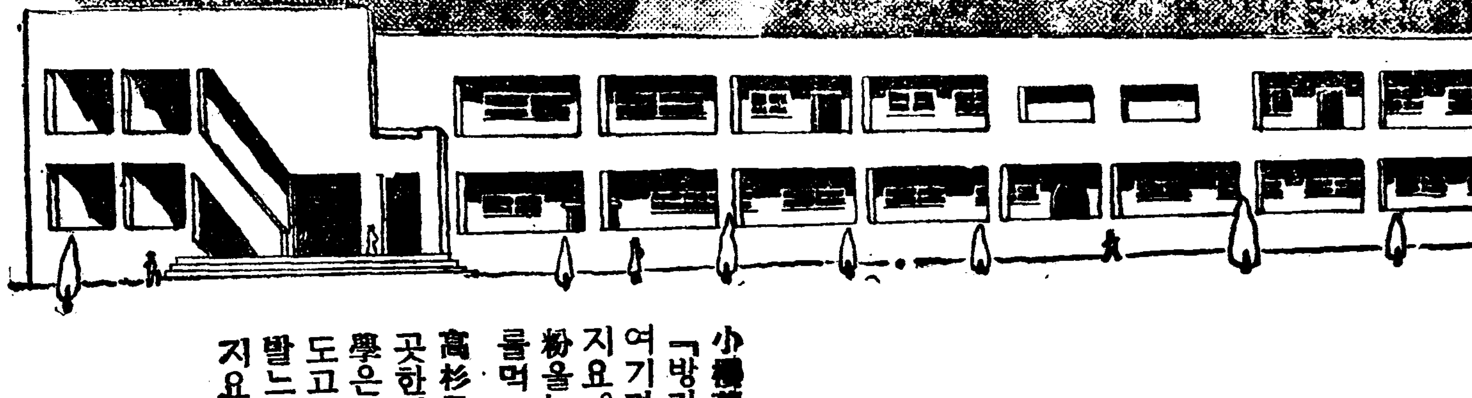
小櫻葉子「굉장한評判입데다。亦是名物의微笑映畵는 松竹의特種이여요。스타들의메크압은 꼭레ー도에限한듯김이나던데요」

詳細는近處販賣店에서 問議하시요。

000273

水谷能子「당신의感情山脈도淸水監督에게 稱贊을밧고잇던데요멕크압이 大端히조타고、호호호」

小池政江「인제알엇습니다。당신이以來레ー도구레ー무를 발느고게섯다시요。白粉이잘먹드군요。나도 그러나저러나늘冐寒撮影이지만 레ー도의恩澤으로살도안것칠게이대로지내갑니다」



小櫻葉子「방가로가보고십지요、여기가우리들의俳優室이지요。이속에서레ー도白粉을늘발르고쪼코레ー트를먹고노래하고…」

高杉早苗「松竹은 참조혼곳한번쫌보실곳 네! 大學은조흔곳한번은오서요 도고쇼레도구레ー무한번 발느면彼氏가맛내로오것지요ー도고쇼新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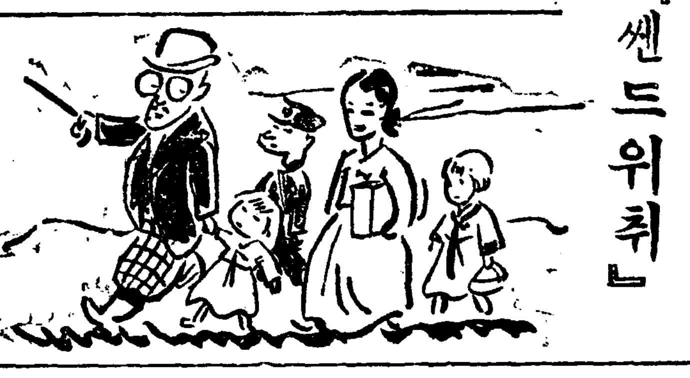
レート化粧料本舖・東京・平尾賛平商店

家庭

날따듯하거든 들로 나가십시다
온가족이 함께―좀 좋습니까?
점심은 집에서 맨든『쌘드위취』

봄볏이 차차로 지터 오면 들밧그로 산보나가는 것이 한 재미입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어깨결어 산보하는것도 조치오마는 부인과함께 애기네를 이끄시고 산보하시는것이 더좋습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걱정되는건점심이 아닙니까? 사먹자니 맛만업고 빗싸고 해가지고 가자니 거치장스럽습니다. 아니, 아조 간단하게 해가지고 가서 자실만한것은 과연 업겟습니까? 요사이 변도도조치오만은 싼드위치가튼것은 더좋습니다. 싼드위치란 녯날 영국의 산드위치백작이 맨들어내인 음식이라 이름도싼드위치랍니다. 아조 짤막한시간이라도 무슨일에든지 사용해야 한다고 평생에 떠들든 그는 간단한 싼드위치로 끼니를 지냇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떠케맨듭니까? 그제조방법을 한번 알어두시는것이 어떠습니까

식빵 즉 면보 를 사용합니다. 힌 면보고 검은 면보고 그것은 상관히 업스나 조흔 재료로 알마치 맨들어 낸 것을 골라 사야합니다. 맨든지 하로뒤쯤이라야 맛도 조코 썰기도좃습니다. 그 이전은 또 몰라도 그 이후가 되고 보면 아조 구더 저서 딱딱하기때문에 쓰지를 못 하게 됩니다. 모지게 맨들어 노흔 큰 면보는 그 기리를 다시 적당하게 잘러서



가로 저미고 동그라케 맨들어 노흔 소위 코페빵이라는 면보는 그대로 가로 저미기만 합니다. 저미는 넓이는 한푼듯게내지 한푼반듯게가 제일조흔데 저민 그순서대로 차곡차곡 노하두는것이 조흡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두께 두툼의 사이되는데다가 채소도 끼이고 고기도 끼이고 또 혹 생선도 끼이고 여러가지를 끼입니다. 햄·싼드위치니 야채·싼드위치니 하는것은 모도다 그사이에 끼이는 물건을 가지고 서로구별하야 이름지은것입니다

×

그러나 그사이에 끼이는 것도 맨드는 방법이 따로 잇습니다. 그중의 몃가지를 소개하겟습니다.

(一) 쇠고기와 새고기와는 큰덩이로 굽거나 쪄가지고 얇게저 민니다. 그런뒤 버터(빠다)를 잘 개여서 보드랍게해가지고 바릅니다. 그러나 겨울 가튼때 빠터가 아조 구더젓거든 잠깐 데워서 보드랍게 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아조 녹아 흐르게되야서는 금물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二) 간에 저럿거나 기름에 떠운 쇠고기나 생선은 얇게 저미고 납작하게 두드립니다. 거긔도 빠터를 발러 좃습니다

(三) 생취가튼 채소는 정하게 씻어서 손으로 적당하게 뜻습니다. 그런뒤 마요네-스 소스나 긔타의 소스를 칩니다.

(四) 아라파라카스는 통에서 끄내서 가로 자르되 끼웁니다

(五) 햄도 통으로 사다가 나이프(양서에쓰는칼)로 무치어서 죽접 방한쪽에다가 바릅니다.

×

그러나 끼우는데도 맵시가 잇서야 합니다. 첫재 빗죽 죽나와서는 보기실코 여긔 저긔 것까지 무터서는 터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끼우든지 한쪽에다가 언듯이 노코 다른 한쪽으로 덧듯이 덥퍼야 합니다. 넘어 적게 너허도 못 쓰지만 송편소 처럼 뻘뻘하게 채우려다가는 안됩니다

校門을 등지는 동무들 ⑤

학교를떠나서도『나가자! 나가자!』
졸업생들의 머리에 백힌표어
梨高篇

한울기 새비치 동방에 비치니 무궁화동산에 첫봄이 왓도다 고목에 쏫봇아 꼬치피오니 성인이 일흠해 리화라 하섯다.

오십년전 녯날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교장 직원 생도들이 보조를 갓치하여 꾸준히 나왓고 또 이압프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노력하는의미에서『나아가자』는 이학교의 표어가 되여잇다고 합니다.

이학교의 교육정신은 사회와 가정에 적당한인물을 길너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졸업생중―상급학교에 가는이들은 가는학교의 규측에 따라서 잘하려니 하고 별말씀 하지안호나 가정에 드러갈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것은 먼저 생활에 취미를부치고 학교에서 배운 리론에만 치중하지말며 항상 불완전한우리가정 생활방침을 개선하여 우리의 생활을 향상식히도록 언제나 독서를 게을리 하지말고 입과 수양을 죽는날까지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제십팔회로 졸업하는 금년의 일혼한명은 가정에 드러가는사람이 설흔여덜명、취직지망자가 다섯명이고 그외의 남은생도는 전부다 상급학교에 간다고합니다 금년졸업생중에서 가장 재조잇는 심호랑(沈好浪)양은 황해도 봉산출생으로 경성사범에 가고 박경련(朴璟蓮)양도 역시 사범에 간다고―。양은 경남 통영 태생이라고 합니다 조문규(曺文圭)양도 남부럽지안흔재조를 가젓다는데 특히 문학에 소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천복(康天福)양은 공부잘하고 양전하고 온순해서 일학년부터 사학년까지 급장직분을 마터가지고왓스며 삼백사십여명이나되는 전교생도의 모범생이 되여잇다고합니다 최종옥양은화생회회장이며 정청경양은 선교회회장김마리아 라정완장귀만양등은 운동선수요 민인자 신숙황양등은 장차 음악가가될만한 소질을 가젓다고합니다

[illegible]順任(慶南) 李良英(京畿)
唐天福(平南) 李令夏(江原)
郭喜淳(京城) 李允淑(京城)
權貞姙(京畿) 李仁淑(江原)
金恭賢(京城) 李元熙(京城)
金德子(京城) 李元亨(京城)
金東植(京畿) 李貞桂(京城)
金瑪利亞(京城) 李昌熙(京城)
金明子(京城) 李惠英(咸南)
金英熙(京城) 林貞姬(平北)
金恩泰(京畿) 文今分(京城)
金貞子(京畿) 文文彩(全北)
金致淑(平北) 文鳳男(京畿)
金孝經(京畿) 閔仁慈(京城)
羅貞婉(京城) 朴璟蓮(慶南)
盧仁信(京城) 朴金寶(忠北)
李康子(忠南) 朴鳳姙(京畿)
李順道(黃海) 朴壽慶(京畿)
朴恩順(京城) 朴花子(京城)
宋明淑(京城) 宋淑媛(黃海)
宋榮淑(京城) 宋榮順(京城)
申觀祚(慶北) 申淑星(京城)
沈好娘(黃海) 安惠植(京城)
安紅點(京城) 劉榮子(京城)
兪美姬(京畿) 尹蓮順(咸北)
張起瀛(平北) 張正順(咸北)
全寶石(黃海) 全壽鎭(京城)
鄭庚玉(京城) 鄭順子(江原)
鄭淸穎(京畿) 曺圭文(京城)
趙珉子(京城) 曺順男(京城)
趙源健(忠北) 池貞順(京城)
崔貞淑(江原) 崔貞愛(京畿)
崔鍋玉(江原) 崔春子(江原)
河貞愛(京畿) 許問烈(平北)
洪光勗(京畿) 洪淑姙(京城)
洪玉蘭(忠北)

齒科에서본 우리네건강문제 ③

세부란스齒科硏究室 金詰庸

五、청년기(靑年期)에대한주의

이시기는 성장(長成)을 완전히 하엿다 할만한때이니 소년기에 부족하얏다하더라도 이시기에 충분한음식을 즉단백질(蛋白質) 이 만히포함된 음식물이라든지『비타민』그외에 린성분(燐成分)등을 만히섭취한다면 소년기에 불충분하얏든것도 어느듯 회복하야 질수잇습니다 특별히 이시기에는 지치(사랑니)발생골난으로 맨뒤의지치주위부(智齒周圍部)가 부어오든가 또는 나자마자 벌레가 먹어다던가 흑은 수평지치(水平智齒)라는가 하야 만흔고통을 당하는례가적지안습니다 심하면 골수염(骨髓炎)이니 골막염(骨膜炎)등으로나 종에는레도잇느니만치 극히주의해서 그런병에 걸리지안토록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 이시기를 당하면 폐결핵(肺結核)환자가제일만히발생되는니만치 모든것에 주의하여야할것입니다

六、장년기(壯年期)에대한주의

이시기에는 완전히 성숙하엿다고 볼수잇스니 이미 불완전하게 성숙하엿다하더라도 그약점을 잘알아서 운동과 기타의 제반주의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어느때에나 주의하여야만 하지만 이시기에 제일만흔 병은 치조루(齒槽漏)즉 너리병에 걸니기 쉬우니 필자가병원에서 롱게를 보드라도 놀나울만치 우리조선사람은 거이七○%(백에이른)를 점령하고잇습니다 섬연중치가업드라하드래도 일년에일차나 흑은이차식 치과의사에게 진찰밧는 것이조흡니다 따라서 모든기관이 쇠태하야가기쉬움으로 더구나 소화긔에 제일문(第一門)인 입안에대하야 더욱 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七、로년기(老年期)에대한주의

로년기에는 대부분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이 생기기쉽고 치아주위조직(周圍組織)에 혈행(血行)이 잘되지못하는례가 만흠으로 아모조록 치아를 충분히사용하야 만약발치(拔齒)한곳이엿스면 적당히 입치(入齒)하야 저작(咀嚼)에 장해가 업도록하는 것이 나머지 생(生)을터욱 길게할것입니다

이상말삼들인 칠기(七期)에대한 주의는 그만하야두고 끗흐로 우리가 반듯이 실행하여야할 몃가지 예방법을말슴하고 이글을 끗막으려합니다

여기서는 이런女性을 뽑소 ②

안경쓴것은상관업고 우선건강한사람
―京城電氣株式會社―

현재의 전차차장 뻐스차장을 합하야 팔십오명의 녀자가 근무하고잇습니다 금번은 뻐스차장만 삼십명을 모집할터인데 오늘이 마츰 시험보는날입니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쳔로가 터증설되고 전차도 며마허지면 며자차장을 장차 모집할터이나 아즉은 오십사명으로 부족지안습니다 매번 일정하게 몃명식 모집하는것이아니라 결원이 되는데따아 보충원을 모집하고 잇습니다

지원자의 자격은 첫재 건강해야하며 보통학교 졸업생으로 만十六세부터 십구세까지입니다

물론 미혼자를 씁니다 특히 인물을본다고 할수는업스나 나쁜인상을 주지아니할정도의 면모를취할수밧게 업습니다. 그러니까 체격도 조와야하겟고 성격이 온화해야합니다. 그러고 의복은 사무시간중에는 반다시 정한사무복을입습니다만 화장가든것은너무잡스러 하지안할정도이면 관계하지안습니다 안경가튼것은 시력여하에따라쓰는것이니 절대자유입니다 어떠튼 건강하고 민첩한분들만히환영한답니다

가정의학

問 도한과 소화불량

이십사세의 미혼남자인데 유년시대부터몸은만호나 무병하엿더니 삼년전부터 도한이잇사오며 도소변이 뿌여케 나옵니다 원인이무어실까요 또소화불량증이생기여 고통이오니 병명과약을 하교하여주시요 (府內 仁旺山人)

答 소화불량증이잇고 도한이 심하게나오다하니 폐장에변이잇는것갓습니다 여러가지로의하신 증세로보면 폐병의시초시긔인것 갓습니다 그런고로더하기전에 고식치료를생각치마시고 적극적으로치료를하게하는것이좃습니다 땀이만흔것은 자기전에 二%주정수용액(酒精水溶液)으로 몸을 씻서보십시요 혹은『아디호린』○三五를취침전에 돈복하야보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榮來)

우리차지

〃영남이의소원〃

아버지
어머니
두분이 싸우시지
마십시요。
저이는 매맞는것
보다、더 섧습니
다。배곱흔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화나시는 일이잇드
래도 저이들을 보
아 푸러주십시요。
우리가 자라면 두분
을 도아 드릴께 아
닙니까。

(글사람 최창섭)

新春懸賞當選小說

轉落 (二十)

車自鳴 作
金熊超 畫

이때에 별안간 안젓다 일어나는 총각이가 손에 들엇든 갈쿠리를 내여던지며 량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압흐로 푹 꾸구라젓다.

『아이구 아이구……』

양전이는 엇결에 뛰여가서 총각이을 잡아일으켯다.

『얘-얘! 왜 이러니 얘얘!』

양전이는 엇절줄을모르나 급히 소리치며 총각이의 몸을 잡아 흔들기만하엿다 겁이 더럭치밀엇다.

총각이는 한참만에야 겨우겨우『아이구!』하면서 머리를 들고 일어낫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아이참 난 엇더케되는줄 압앗구나!』

양전이는 겨우 안심하고 총각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라보앗다.

『패니 머리가 어즈러워?』

『안야 배가곱흐면그래 나 배곱흐면 왜작구 어즈러운지 몰으겟서!』

『글세』양전이는 엇더케 위로를해야 조흔지 말문이막히고말엇다 요즘부터도 벌서 밥들은 제대로 못먹는 모양이다

『아츰에 도토리만 조곰먹고왓드니―』

총각이는 다시 이럿케 혼잣말하듯 중어리고 이내 눈에 눈물이 글성글성한다

『그럼 내려가작구나! 배곱흔걸 작구 쏘단이면 엇더허니!』

『내려가문 멀하니 먹을것두업는데 마찬가지지 오늘은 어머니두 누어잇고 내라도 만히캐가야지!』

『그럴술 알앗드면 내가 감자라두 삶아가지구올걸!』

『까짓 매일그러닛가 좀앗사하긴하지만 어젠 심상하드라 정취뿌리라두좀 먹어야지!』

하고 총각이는 바구니에서칙뿌리를꺼내드니 우믈우믈 집어서옴을 찝찝빨아 먹는다 얌전이는자긔혀에도 뿌두두한맛이 도는것 갓탓다

양전이는 한참동안이나 층은한 눈초리로 총각이얼골을 바라보앗다 유심히보니 총각이의 얼골은 가을과는 딴 사람인듯 수척해젓다 좀 검긴해도 단단스럽고 혈색도 과이 나뿌지안흔얼골이 이제는 푸석푸석하게 부풀너올으고 빗도 누러케 변햇다 눈에도 엇재 초ㅅ긔가업서보힌다 양전이는 별안간 회심한생각이나서 고개를돌리엇다 조그만아이를 다린 여편네가 아장아장들어오는 것이다.

방고여갑이 구럼을메고 그들 안저잇는 압흐로와서 한참 씨름질이다가 갓다.

치룽이 헛수가 업니서 양전이를 바라보고 화가 나는듯이 한번 휙 내던젓다.

경두리때쯤되여서 그들은 물방아ㅅ골쪽꼬우헤까지 기피들어갓다 한숨을 푹쉬고 들엇든 창칼을 총각이는 다리를 허청거리면서도 끈기잇게 풀뿌리를 차저단인다 그들은 마츰내 물방아ㅅ골뒤 출탈바잇스는곳까지 다달앗다 출향나무가 산전체를 뒤덥흔곳을 일홈이다

이름방아ㅅ골 뒷산 출향밧흔 산넘으면 전체를 절령하다십히 넘은곳이다

등성이를 넘어서 빗탈을 조금 내려가면 한길가량되는 벼랑이잇고 그벼랑밋헤는 비탈전체가 곽엉기어붓흔 출향나무로 입면바다를 일우어잇다

총각이와 양전이는 풀뿌리를 따라서 차츰차츰 바로 출향밧잇는 버랑위까지 내려갓다 그곳은 사람이 잘 단이지안헛는지 달은곳보다 풀뿌리가 좀풍성하다

총각이는 악가부터 바로벼랑위에서 갈쿠리로 출뿌리를 뚱기처캐고잇섯다 좀큰놈이 되여서날내캐여지지 안는다 그는한번출밋둥을 작고힘것잡아다려보앗다 처번에는 움칠도 안하드니 메번되푸리하는새에 나종에는 움짓움짓 조곰식 움지기가 시작한다 그는 입을악물고 더욱힘을 주엇다 그러나 출뿌리는 성화를 밧치는듯 나올듯나올듯하면서도 도모지 뽀바지지 안헛다 총각이는 이제는 긔운이줄어저서 더 잡아다릴수가업섯다

이것을보고 양전이가 쫏차내려왓다

『내독 뽑아주련!』

양전이와 총각이는 다시 힘을 합하야 잡아다리기 시작햇다 벼랑이솜 위험하기는하나 위로 잡아다리면 더 안뽑아질것가태서 그들은 무심코 아랫쪽으로 잡아 다리엿다

『온 요놈이 왜이리안나와!』

그들은 마즈막으로 잇는힘을 다하야 입을 옹물고 다리를 벗드듸면서 딱 잡아다렷다 그러자 랑!하고 출뿌리가 중동이에서 끈허지면서 그 찰나 그들은 뒤로 벌낭 나가잡바젓다

어느藥店에서나第一만히팔님니다

回效散 (회효산)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五圓

本舖 合資會社 森田製藥所 東京·大阪
振替東京八九四八番

○賣藥肅正○

齒痛頭痛에 (치통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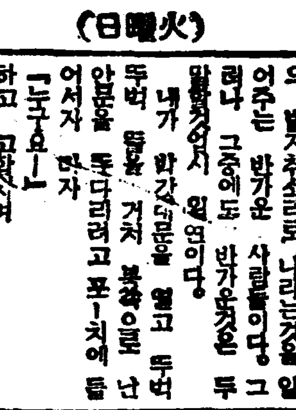
齒痛에 服用하고 稱賛안는 분업고
頭痛에 服用하고 讚揚안는 분업는
精妙한 高貴藥

來ル十五日夜初封切 上映時間午前十一時開始
矢繼早に中央が放つ!新興特選名畫とPCL傑作映畫の併立日本立名プロ選!
特別興行なれど普通料金 大衆席 大人 四十錢 學生 三十錢 小人 二十錢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原作 佐藤紅綠先生 監督 矢倉茂雄作品
絹の泥靴
竹久千惠子・千葉早智子・細川ちか子主演 丸山定夫・藤原釜足・大川平八郎 百合子・林千歲・助演
新興キネマ超尊假時代劇 原作 加戶野因見 監督 石田民三傑作 オール・サウンド
梧桐の唄
尾上菊五郎・森靜子主演 嵐見國郎・木村鶴子助演
新興東京撮影所現代劇 原作 中野實 監督 曾根千晴 オール・トーキー
私のあなた
伏見信子・立松晃・主演 小宮一晃・若水照子・松千靜子助演
永樂町 電本二三 中央館

人?狼?半獸人間의出現!
二月十五日부터超特別大封切
유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匠스츄아ー드우워카氏入作品!
倫敦의人狼
헨리 하ー루 벼ー리 하누슨
안개끼인倫敦의거리! 狼의우름소래…狼血에全身… 當한젊은科學者는滿月밤、人家을求하여暗黑의거리를헤매이노나… 非世紀英京을戰慄한獸血人間의怪奇戰慄篇
유社特作全發聲連續大猛闘 레이 대이라ー氏監督 바크 존스氏主演
旋風地獄谷 全十五篇中 最終解決篇
第十三篇……逆捲의激流
第十四篇……猛牛의殺到
第十五篇……征服의甘味
大都映畫社特作時代連續篇 白井戰太郎監督作品!
謎の泥人形 後篇
海江田讓二 主演 月宮乙女 助演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二月十日より二月十八日まで 上映時間表 ひるの部 よるの部
雪之丞變化第一篇 二·三〇 六·三〇
雪之丞變化第二篇 一·一〇 五·一〇
東京朝日 大阪朝日 連載小說 原作 三上於菟吉 脚色 伊藤大輔
▲雪之丞變化 第一篇、第二篇同時上映
監督 衣笠貞之助
林長二郎、伏見直江、井上久榮 嵐德三郎、高田浩吉、下加茂 オールスター
解決篇上映を前に再び繰り擴げられる思ひ出の番繪物!!
雪之丞變化解決篇は近日上映の豫定
浪花館

十三日ヨリ十七日迄特別封切 晝夜二回 晝十二時半 夜六時半 始映
フオックス映畫超特大作日本版 ハリー・ラックマン監督作品
詩聖ダンテ不朽の名作「神曲」の映畫化、フクックスが再度社運を賭して完成せる豪壯華麗の超鉅篇
▲ダンテの地獄篇
スペンサー・トレイシー クレア・トレヴォ 主演
金權萬能を謳歌する成り上りものジム・カーターは豪壯華麗な『大地獄』のショウを建設したが彼の成功の裏には多くの人々が犠牲になつて、これ等呪咀に依りさしも豪華を誇つた『大地獄』の建物が一夜の內に破壞し去り、生き乍らダンテ地獄の現出を見、結局愛こそ人間の至寶である事を悟る壓卷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エリオット・ヌージエント 監督 クローデット・コルベール 主演
戰慄、涙の名篇
▲三角の月
リチャード・アーレン メリイ・ボーランド 主演
近日封切 生命の雜踏・野いばら ロイドの足永第一・フランダースの犬
安くて面白い
若草映畫劇場 電本五二三四番



『일연이』

李歌河

대개 한주일에 한번 두주일에 한번은 의례히 동무를 찻는다。

동무와 정사람은 모다가 나의 벗자취소리로 나라는것을 알어주는 반가운 사람들이다。그러나 그중에도 반가운것은 두말할것업시 일연이다。

내가 한간대문을 열고 두번 뚜번 뚜을 거처 복창으로 난 안문을 뚜다리려고 주-치에 들어서자 마자 『누구요-』 하고 고함지며

마루 를 통통 울리고 달려나오는것이 꼬마 일연이다。나는 『나요-』 하고 대답하며 문을 뚜다리다 만다。일연이는 한번대답만으로는 만족지아니하다。다시 이번은 떼큰소리로 『누구요!』 하고 고함친다。나도 지지안케 소리를노며 『나요!』 하고 대꾸한다。우리의 『누구요』 『나요』가 온

집안이 시끄럽게 너다섯번 거듭될때쯤하야 문이 열린다。우리의 얼골이 마조치자 일연이는 『응 아저씨! 난 누군가햇지』 하며 머리를 갸우둥하고 토실토실한 두눈사이로 하얀 웃니를 들어낸다。나는 『응 일연이든가、나도 누군가햇지。어디 일연이 그동안얼마나 컷나 좀 들어볼까』 하며 일연이를 안는다。『아이고 일연이 커구멍 일연이에샐낫는지』 『다섯살』 『다섯살? 다섯살이 무슨 다섯살이가 일연이 네살낫지』 『아니 다섯살낫서』 『오오 참 일연이 인젠 다섯살낫지。그러면일연이 학교에 가야지』 『이제 엄마하구 유치원 가야 번또가지구』 『응 번또가지구 가방메구。일연이 참조켓구먼』

그러나 일연이는 **오래** 안저잇스려고는 하지 안는다。이것도 일연이한살 더먹은 탓이다。나는일연이를 내려노흐며 주머니에서 초코렛을 하나 끄내준다。일연이는 목아지를 이리갸웃둥 저리갸웃둥 어느새 납지를벗겨 한입 크게 베문다。히든 웃니가 금시 검어지고 입술과 두볼에는 어느새어즈러진지도가 그려진다。이제야 아버지가 빙글 빙글웃으며 나오시고 할머니가 나오시고 어머니가 나오신다。일연이는 어머니 치마자락에 매달려 몸을 이리저리꺼기둥 발을 동동 놋앗다。초코렛을 한입에물고는 우리들의 얼굴을처다보고 한입베물고는 우리들의 얼굴을처다보군한다。그러고 아버지가 『어서 들어가세』 하며 압장서는것을 보고는 더 간참지 못할것을 알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가방으로 쫓 다라가버린다。

그러나 갈때가되여 마루에서 구두를 신고잇노라면 일연이는 의례히 또 『아저씨 가오』 하고 고함지며 **한번** 다시 마루를뚱뚱울리며 달려나오는것이다。나는 『오오 일연이。일연이 한번 더 들어 봐야지』 하며 일연이를 안는다。일연이는 웃는다。그러나 말은 업다。『일연이 그러면 잘노라 응 아저씨 가차이 또 옥게』 하며 나는 일연이를 내려 놋는다。일연이는 우리들이 인사하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사이를 와다갓다하며 나의얼굴만 처다본다。말할 기회를 가지못하는것이다。그러나내가 왼끗트로 인사하는것은 일연이에게다。나는 『일연이 안녕』 하고、머리를 끄덕하며 『일연이 안녕히해야지』 한다。일연이는 어떤때는 『아저씨안녕』 노하고 어떤때는 하지안는다。금년접 접혀서는 하지안는때가 만타。이것도 일연이가 한살을 더먹은 탓이다。

나는 어린애란 경이원지하는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의 하나이다。어린애란 모지 헤아릴수업고 비우마츠기가 몹시 어렵기때문이다。그러나 일연이만은 몹시 귀엽다。그러고 일연이 마음만은 알것다。일연이가 크면 상에 실컷 초코렛을 사다줄라든지 고만하고 크지안헛스면한다。나는 일연이가 언제 짜리고 또 밤낫 『더 옛살낫니』 하고 려면 너 학교에 가야지 하고 반게 말할줄을은 이 무거운아저씨를 따를 리가 업기때문이다。

學藝

文藝月評 ④ 白鐵

現代文明의 獸性的象徵

柳致眞氏의『獸』

近代의 어떤 批評家는 戲曲에對하야 이런말을하고잇다 『抒情詩에잇서서는 情調가 支配하고 叙事詩에잇서는 그것을 決定하는 境遇와 또는 威力의 精述때문에 性格은 充分히 發揮되지못한다 그러나 戲曲의 對象은 動作이다 意慾하며 行動하는 人間의 性格은 그自體에잇서 明瞭確然한것이여야한다!』라고 『아리스토테레스』가 그의 批評의對象인 悲劇의內容에對하야 人間의行動과 性格을 密接히 指摘한것은 누구나 **周知** 하는 事實이며 近代戲曲作家들에잇서서도 그의登場人物의 紹介에 丁寧히 各人物의 性格을 精述하는(例를들면 『로맨롤랑』의『狼群』等)努力을하는 境遇等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알고잇다 생각컨대 戲曲에잇서 人間性格의 的確한描寫는 戲曲의 最重要한 性格이아닐까? 그럼에도不拘하고 近世에는 이戲曲의性格을無視하고 소위事件의氣候라는模糊한분위기로서 人物의 性格을 破壞한時期가잇섯다 우리들은戲曲을 읽으면서 或은 上演을보면서 登場人物의A와B사이에아무 明確한線을 發見하지못하고 彷徨할때가 얼마나 만헛든가? 이人物의 性格破壞와 그의 矮小化가 戲曲을 邪道에 떨어지게하엿든것은 勿論이엇든까닭에 그것에 對한反省으로서 戲曲을 邪道에서 救하기爲하야 人間의새롭은타입의發見과 登場人物의뚜렷한個性이 要求되고잇는것은 注目할現象일것이다 柳致眞氏의『獸』를 읽으면서 나는 무엇보다도作家의 性格探求와描寫에 巨大한 努力을 加하고 잇는것을 깃뻐게생각하얏다―場所는 멀리 中國의 一都市、某會社의一家庭에 取材한 이戲曲에는 登場하는 主要人物이 六人이잇스나 그六人의人物들은 어느것이나 各各特殊한타입』과 別個의 性格을가지고 讀者에게 一一히 明確한 印象을 주고잇다 지금 나의눈압헤잇는 그人物들의 여러가지 印象을 具體的으로收拾해보면 『그들의祖父』는『마레트』『링크』의『闖入者』(同作品參照)에 나오는『祖父』(눈머른祖父)는死에對하야 一種의 魅惑을 가지고잇다!)의面貌를 가지고切實한聯想을주며 깁흔母性愛와 뒤떠러진意識의 中間에서『우리집大善이나 아니면 조흐련만(그러타죽어야지!)』라고 부르짓는이 時代의 一典型의『어머니』와 農民으로서 粗朴하고 『탐으로』한性格가운데도 꼿꼿하고 頑固하고미듬性잇는『네창사람이 한번죽지 두번죽을껴라구』할하는『그들의外叔』과 卑陋한 根性때문에 새롭은 時代에對한 아무 感覺과 想像의힘을가지지못한 겁쟁이고 **卑却** 한타입으로서의『紅梅父』가잇으며 以上의 人物에比하야 明確하지는못하나 씩씩한氣質의 靑年으로서의『大善』이잇고 病弱한『少善』의纖細한 哀傷的感覺과 그의病的興奮等이 一一히 그의明確한線을 보여주고잇다! 이짧은單幕物에서 이만한 性格을그리고 잇는것은 決코 平凡한努力의 所產이아님줄안다 題材取扱에잇서도 처음에 조히롱레기를 普通房에감추는 場面과 나종의『여기서는 좀 종용해주세요……』等이 若干 常識에버서나고 따라서 作品全體의 調和를깨트리는곳이 잇스나 그런小部分을 除하면 全體에잇서 커달한 調和와 緊張된분위기가 維持되고잇스며 切迫한카태스트로피의 切實味가 保持되여잇다 過去의 프로레타리아戲曲에서는 이 緊張味와 切實味를 期하기위하야 흔히 過激한 政治的 標語를羅列하얏스나 이 作家는 그效果를 그런 無理한 곳에 期하지안코 一層 自然스러운 場面에서 順調롭게 **成功** 하고잇다『小善』이 病死한後 그無意識한 어머니의絕叫『……하나님 사람의 자식을 이러케 말라 죽여도 조흡니까?』에서 오는 切迫한 興奮은 『아아 하나님 이나라에는 언제가되면 救世主가오시렵니까』(시르레르의『윌리엄·텔』一幕參照)의 그루오드이의 絕叫에서 오는 以上의 效果가 잇지안흔가? 이번의『祖父』의말『굴세어떠케들으면 그럴법두하구 또어떠케 들으면 그러치 안흔것두갓네 그러치만 한분이라도 더바다내야지!』가운데도 平凡한듯하면서커달한 眞理가숨어잇다고본다!그리하야 作家가 이戲曲에서 期한效果는 讀者와觀衆압에現代文明의 野獸性과그獸性을 象徵的으로 提示하려는것이아니어든가? 『獸』!그것은 現代의人民의頭上에 修道輪과가티 抑壓하고 넘어가는 野獸의象徵이다 作家가現實을 그린다는것은 常識的으로 그것을說明하는程度가아니고그眞實味가 象徵까지 到達하는때를 가르친것이다 『페텐』는말한다 『나의온갓創作의일은 어느것이나 象徵的이다』라고 偉大한作品은 그것이時代的現實인同時에 그現實味는 象徵的概括까지高昂되며 結晶된것이事實인듯하다 이 『獸』가 그 **象徵** 까지의結晶에는到達하지못하엿다고하여도 그곳까지 到達하려고努力을보이정만으로도 作家精神을 是認하여야할것이다 何如튼『獸』는 조은作品이라고본다 이『獸』外에『劇光』이라는 同作家의作品이잇스나 거기에對하야는 別項으로말하고 십흔것이업다 만 才能잇는 作家도 흔히 敗作을쓴다!는眞實로서 그讀後感의 不滿을 速斷하려고한다

戲曲

春香傳 (古)

柳致眞 脚色

【禁無許上演】

男子　몰나요 무슨일인지。그저 동헌이 좀 시끄러워진눈치야요 삼문밧게서 사령놈 들이 하는소리를 드르니 무슨 경사가 낫다나요。

夢龍　경사!!

春香　경사가낫스면 뭐 야단이십니까?

夢龍　아니야 또 눈치를 채시고 공부안한다고 남타러 꾸지람이나 하실려고 그러시나부다……그저 그눈 의금공부가 내큰원수요 우리 아버지가 내작은원수야。

男子　얼는 가보오 늣게가면 애꾸준이놈까지 혼나요。

(夢龍 중추마를 다시 고처 입는다。月梅와香丹이나와본다)

月梅　에그 정심이 다됫슬텐데 이왕이면 자시고 가시지。香丹아 진지 어찌됏니?

香丹　다 됏서요。

夢龍　괜찬어、안먹어도 넹。

月梅　떡입으로가서 시장하시겟

男子　헝……밤낫먹는거야 우리 도령님이 어듸 굶어 다니는 양반인줄 알엇소!

夢龍　춘향아 오늘저녁엔 파루칠때나돼서오마。꼭기다려라。

月梅　웬만하거든 다른핑계를대고、그만 빠져나오게 늙은이 쫄속에먹기로 죄되나。

(夢龍冊을끼고 房子와退場)

月梅　웨그럴까? 별안간?

春香　몰나요뭔지。무슨경사가낫다구도해요。

月梅　경사? 그럼 어듸서 혹 혼처나 생겨서 도령님더러선 울뵈실려구 그러는게아닐까?

香丹　에그 마님 어제엇는 혼처가 별안간 어듸서 생겻겟소?…… 아마사도께서 또글지으시다가 글끼가 떡혓서나 보아요 그저께도 그래서 불러가시지 안햇소?

月梅　참、그런가봐。이러고보면 도령님의 글잘하시는것도 병이야。패니 섬희를 비치지、

香丹　에그 파루칠때까지 어이 기다리나

月梅　호호호……장시를 못참어 이래니 애가 영리벌이나 하게되면 큰일나겟구나。

寡婦　형님、큰일낫소 도령님은 어듸가섯소?

(이웃寡婦登場하야)

月梅　웨그러오、아우님。

寡婦　이거 웬일인지……아즉대에서도 이런소문은 못들엇스리다。저……바로오늘 사또께서 행차를 하신대요。

春香　뭐요?

月梅　아니 그게 무슨말이야? 어듸서 들엇소?아우님、

寡婦　우리집뒤에사는 도서원(都書員)알지요。그집 마누라가 금방 그럽되다、형님。…뭐라더라、사도께서 동부승지(同副承旨)를 햇다던가―좌우간 그래서 승상령하라는 전교가게시대요。그래 오늘 를 시게됫는데 막 마두병방(馬兵房)부터 말단속하고 공고자(工庫子)불러 쌍가마꾸미고 도사령(都使令)불러 장울 정하고 륙방두목(六房頭目)들 태 공공(公由)을정하고 리방(吏房)불러 문서하긔(文書下記)를 닥그시고―그저 야단이시래 지금 동헌에서는……

月梅　아니 이게 엇지된 영문이야?

春香　그러면 어머니 아까 경사낫다는것이……

月梅　(우두망치으면)호호호……

寡婦　모두헷소문일꺼야 아모리 그런 전교가게시다기로서니 별안간 그러케 치행을 서들러 만부하고 그리고 그러케 동헌서 떠드는일이라면 아모려면 도령님께서여태모르고 게실리 업지안켓니?

春香　……글세요。그럴까요?

月梅　……아니가만잇서……옳지。요、사위변석이 우물우물해서 이애를 떼노코갈려고 능청스럽게 그런소문을 감추고 잇섯는지도 모르지

春香　그럴리야잇겟소 어머니。

寡婦　그럴틴 업슬꺼요 형님。공부하는 도령님이되서 동헌에서 이러나는 일을 통을라슬꺼야요。더구나 그도령님이 요즘 한데서 주무시고해서 동헌에서 이러나는일을 아시겟소。

月梅　아니오、아우님、요즘 내놈들이 여간 내흉스런것이 아니오。이런망할자식이 어뒷단! 원 나를속일려고…

春香　웨이러오 어머니、아지도 못하시고

寡婦　에그형님도호호호……무슨 걱정이오。도령님이 가시면 아기도 따려가지。향양이 천리래도 님따려가는길은 지척이라오。

月梅　참、아오님말이올소。따라가면 그만이지。이년아 딸아가거라、따라가서 서울님해라。

寡婦　더구나 애시아버지가 동부승지해서 내직으로 들어가신다면 그게 참정사순번일이오

今春 各學校試驗細規

(詳細는當校로 直接問議하시오)

光明學園高等女學部

▲募集人員 一學生 五十名 二、三補缺生若干名
▲試驗日字 三月廿七、廿八
▲申請期日 三月廿五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東萊日新女學校

一、募集人員 約四十名
一、申請期限 三月二十三日까지
一、試驗日字 三月二十六、二十七日、二十八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間島東興中學校

▲募集人員 第一學年 二百名 二、三學年 補缺若干名
▲申請期日 四月五日限
▲受驗日字 四月十日로부터三日間
▲受驗科目 國語 算術 朝鮮語 漢文
▲受驗處所 間島省龍井市同校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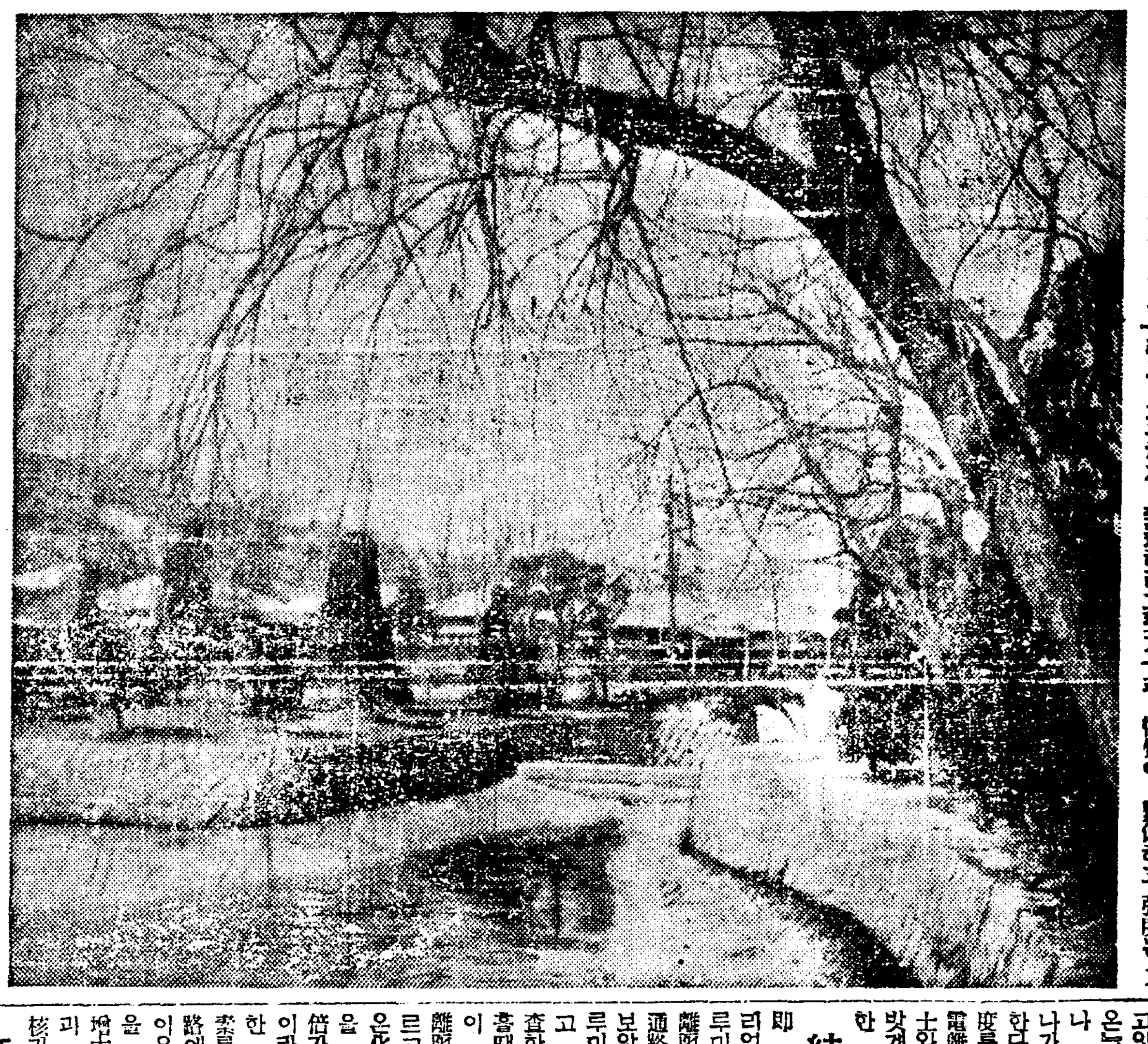
京城女子醫學講習所

一、募集人員 約三十名
一、申請期日 三月末日까지
一、試驗日字 自四月一日至二日
一、試驗科目 物理 化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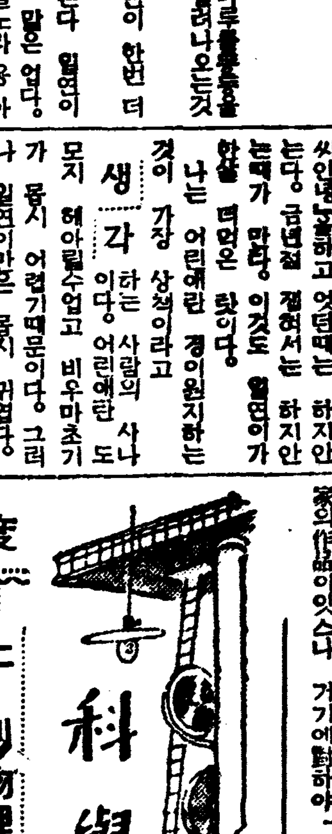
時調 書帖 (其二)

저설이 다녹도록 봄소식을 몰낫더니
귀홍득의 편공할이오 와류생심수동요라
아희야 새술걸러라 새봄마지 하리라。

(無名氏)



科學



1935年度 노-벨物理學賞 제임스·차드윅

그畧傳과硏究 (二)

都相祿

이제 차드윅博士가 中性子를 發見한 順序의 大要를 알기쉬운말로써 記述해보고저한다。

폴로니엄이라는 放射性物質은 힐리엄原子核과 同一한 알파粒子라는것을 輻射하고서 우란鉛이라는것에 變形한다。一九三〇年에 뻐데·뻭카-兩氏는 폴로니엄에서 輻射되는 알파粒子를 **高** 速度의 여러가지 物質에 照射해여 봉쏘、부다친 物質에서 X光線과 性質이 類似하고 强度는 X光線以上의 所謂 깜마線이 放射되는것을 發見하엿다。그리고 綠柱石의 一成分인 뻬릴리엄에 照射한즉 깜마線이 가장 만히 放射되는것도 알엇다。이 原因에 對해서 兩氏는 알파粒子가 부다치는 物質의 原子核內에 捕捉되어 그 核이른 原子核으로 變할때에 에넬기의 남은것이 깜마線이 되어서 放射된다고 하엿다。

陰電氣 或은 陽電氣를 가지고잇는 原子 또는 原子團을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X光線이거나 깜마線가튼것이 氣體中을 지나가면 氣體의 分子가 이온化한다。이 이온化 卽 電離의 程度를 精密히 調査하는 器具를 電離函이라 일홈한다。차드윅博士와 함께 今番 노-벨化學賞을 밧게된 조리오夫妻는 우에 말한 뻐데·뻭카-兩氏의 **結** 果에 刺戟되어 다음과 가튼 實驗을 하엿다。

卽 폴로니엄을 使用하여 뻬릴리엄에서 放射되는 깜마線을 알루미니엄의 箔을 通하여 電離函內에 드러오도록 하고、그 通路에 여러가지 物質을 두어 보앗다。例하면 一糎半厚의 알루미니엄、銀、鉛板 가튼것을두고 電離函內의 이온化程度를 調査한즉 上記 金屬板을 두지 안흘때에 比하여 그다지 다를것이 업더니、偶然한 생각으로 電離函에 파라핀이라는것을 바르고 實驗해본즉 電離函內의 이온化가 매우 增大하야 파라핀을 바르지 안흘때의 그것의 數倍가 되는것을 알엇다。파라핀이라는것은 水素를 一成分으로 한 一種의 蠟인데、그뒤에 水素를 含有한 物質을 깜마線通路에 두고 如前히 電離函內의 이온化를 調査해본즉 파라핀蠟을 바르든 때와 가티 非常히 增大되고、水素를 含有한 物質과 電離函과의사이에 水素原子核가튼것이 **透** 過하기 어려운 알루미니엄의 薄板을 두고 電離函內의 이온化가 매우 減少되는것을 알엇다。以上의 事實을 미러워서 조리오夫妻는 다음과 가튼 判斷을 내리웟다。卽 水素를 含有한 物質에서 放射되여 電離函內에들어가서 이온化를 增大시기는것은 깜마線이 아니라 水素原子核인 푸로톤이라고 하엿다。그리고 이 푸로톤의 速度는 光의 그것에 比하리만콤 高速度인것이다。여기에 問題는 푸로톤이 어찌하여 이가티 高速度의 에넬기를 가젓슬가 하는것이다。

强度의 X光線을 石蠟이거나 파라핀가튼 物質에 照射하면 照射한X光線과는 種類가 다른데 또한 方向에 따러서 種類를 달리하는 X光線이 散亂되는대이때에 照射된 原子內의 電子가 衝擊을 닙어서 뿌리치우게 되는것이다。이現象을 캄톤效果라고 부른다。조리오 **夫** 妻는 우에 갈한 高速度의 푸로톤問題에 대해서 이것은 뻬릴리엄에서 放射되는 깜마線이 水素를 含有한 物體에 부다치어서 이러나는 캄톤效果로 말미암어 水素原子核이 反撥되는 까닭이라고 說明하엿다。

이結果를 은근히 이상하게생각한차드윅博士는 조리오夫妻가 하든것과 가튼 實驗을 여러번 거듭하여본結果、뻬릴리엄에서 輻射되는 放射線에 의지하야 反撥되는것은 푸로톤만이 아니라 힐리엄·炭素等의 原子核도 同一하게 反撥되는것을 알엇다。그러나 캄톤效果로 反撥되여 큰-에넬기를 엇게되는것은 電子인데、이때에 電子의 무게의 約二千倍가 되는 푸로톤도 反撥되여高速度를 엇는다는 조리오夫妻의 **解** 釋이 元來 의문이잇섯는데、힐리움·炭素等 水素보다도훨신 무거운 原子의 原子核이 갓튼 效果로 反撥되리라고는 미더지지 안는다。그리하야 차드윅博士의 어든 結果는 조리오夫妻의 이 問題에 대한 解釋 卽 캄톤效果에 起因되는 反撥作用이라는것을 否認하는것이 되고말엇다 그뒤 차드윅博士는 여러가지 考察한結果、우에 말한 實驗에 잇서서 原子核에 에넬기를 주는것은 깜마線이 아니라 뻬릴리엄에서 깜마線과 함께放射되는 무게잇는 微粒의 物質粒子인대、그것은 電氣를 가지지 안헛고 무게가 푸로톤의 그것에 近似하다고하면 모-든實驗的事實을 遺憾업시 說明할수잇는것을 알엇다。이것은 두말할것도 업시 中性子의 實在를 確實하게 證明한것이엇다。事實로 되며、그뒤 여러 學者의 硏究에서도 中性子와 함께 깜마線이 放射되는 것을 차드윅의 解釋을 立證하고도 남음이 잇섯다。

讀者社交室

▲安東縣林璟秀先生께。先生께서 『에쓰페란토』를學習하시겟다하오니 참으로반갑습니다。저의생각으로는 左記가가장適當하다고밋습니다。中等二年程度歐洲語知識이잇는이에게는 エスペラント捷徑 五〇錢 送料四錢 外國語知識이업는이에게는 エスペラント講座 五〇錢 送料四錢 以上發行所는 東京本鄕元町 日本エスペラント學會(振替東京一一三二五)이오며 日文입니다 (一에쓰페란티쓰토)

▲左記몃가지를 못사오니 가르켜주시오면 薄謝를 進呈하겟습니다
一、大正六年 陰六月二十四日 陽曆으로 何月何日이며 또 月建日辰은 무엇이며 또그날貴時는 干이 무엇이오리가 社交室로 通知하시면 報謝하겟나이다
二、日本어떤出版社에서 發行한 古貨幣價錄(?) 假令 明治十三年의 銅貨는 얼마價値가잇다는것을 가지신분이 게시면 讓渡하여 주실생각이 잇스면 價格과 住所를 本欄으로 通知하여주시오 慾求生

▲書生 當年廿三 中等學校三學年中途退學 文學에對한素質이잇슴을自信하고 文學理論을硏究하야왓슴니다 그런데이제부터는 社會의各方面과接觸하야 經驗도엇고 先進家들의 直接指導를 바들생각으로 書生이될가하오니 有意하신作家는 一次採用하심을 바라나이다 本人의寫眞鏡培率(×800×1 研究生

▲朝鮮日報社短篇小說 一、張德祚作『女子의마음』第十二回分 一、宋影作『福順이』第十四回分 生이收集中 事情에依하야서 收集하지를못하엿스니 或讀者여러분중 가지신분이게시거든 未安하지만 한 二日間만빌려주실수잇슬가요? 이社交欄을 거처 貴下住所와 芳名을記하여通知하여주시면 郵稅를 附送하겟습니다 梗下洞一〇九 丑生

▲文人李光洙氏의現住所를가르처주심을 敬要 二月十二日 元山K生

▲六經神을 직히면 精神統一이된다니 經驗하신분이 게시면 一報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科學上으로서는 어떠케보는지요 (天摩山人)

▲求書 世界文學全集中『最後の一線』이란冊과 經濟學全集中『朝鮮社會經濟史』及改造社版 카우쓰키『資本論註解』란冊을 低價로讓渡하려는분을알려주시요 平壤府鄕町二一 金命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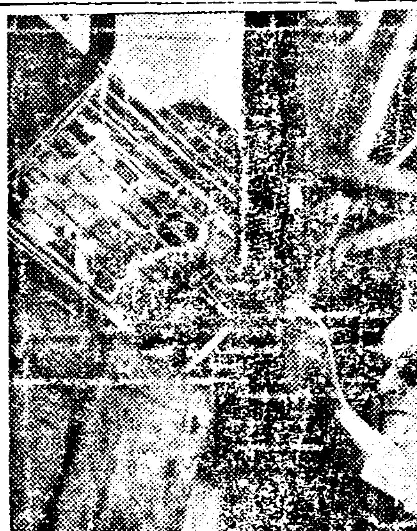
▲吳東昌公 昨年에빌여간小說『囚はれた大地』를 곳돌여보내주섯스면 고맙것나이다 太平通一丁目六一 高秉哲

(○)을求하옵는바 어느會社製品이든지 相關업사오니 所用안되시는中古品을 廉價로讓渡하실분은 一次通知하여주시기시오 市內西大門町 二丁目五〇番地 孫奉根

新刊紹介

▲朝鮮工業協會會報 第三十二號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發行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三十錢
▲佛敎時報 第七號 京城府斛洞五의三七 佛敎時報社發行 振替京城二三八四三番 定價十錢
▲新兒童 二月號 京城府臥龍洞七一 新兒童社發行 振替京城二三八五三番 定價十錢
▲實生活 二月號 京城府樂園洞三〇〇 實生活社發行 振替京城二一九〇六番 定價十錢
▲三千里 二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三千里社發行 振替京城一九四九番 定價三十二錢 (資料面)
▲기쁜소식 二月號 京城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 聖潔敎會出版部發行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五錢
▲復活運動 二月號 京城府鍾路五丁目七九 復活社發行 振替京城一八七〇番 定價五錢

新發明『太陽爐』



特種의 『렌쓰』를써서 太陽光線을 一局部에 集中식혀 日常生活에 利用할수업슬까하는것은 벌서부터 생각하여오든바인데 今番에 西班牙人『호세·이라·콘트』라고하는사람이 案出한 太陽爐는 매우 簡便하다한다 (寫眞은 콘트氏가 太陽爐에 생선을 익히는光景)

000274

毒掃丸 (독소환)

이螺旋이梅毒病原菌이다

世界人類를威脅하는 梅毒의根本治療

諸種의學說은統一되야 드듸여新療法을確立함

梅毒이古來로 慘害를吾人類에게주어도 其病이不明함으로、治療를할수도업고、但只、蔓延됨에放任하야왓슴으로 드듸어惡魔의所爲로써 拱手傍觀할外他道가업섯다 그런데進步한近代醫學은드듸어梅毒病의正體를發見하야 爾來六〇六號(살발산)의注射療法을發見하야 只今은또沃素療法의理論을確立하야서治療界에新紀元을獲得하야最後의一病菌까지도驅逐하고淸淨한體軀를맨들게되얏다

果然惡魔의使徒인가 暗暗히무더버린梅毒嬰兒

梅毒兒는惡魔의 使徒로서 此兒로因하야一家는 咀呪되고、家運은衰滅하게된다하야 生後에곳慘殺하는風習의地方이다

元來梅毒은 스피로헤-타란病原虫이體內에潛入하야서 生起는病으로 이病菌만絕滅하면 아조낫는梅毒은一掃된다

또梅毒兒는 父母兼의 果報로서 母親의胎內에서梅毒에感染된으로 어머니의梅毒을治癒하기만하면 梅毒兒가 出産되지는안는다

萬一또梅毒兒가나엇다하드라도相當한治療만하면健康은恢復할수잇다

梅毒은무섭지안타 다못잘못된治療를 무서워할뿐

梅毒은一旦이것에걸리면、皮膚에는더럽게發疹되고、頭髮은脫落하고、코가떠러지고 畢竟에는座臥步行의自由를일코、또其害는本人에만 끈치지안이라 子孫에까지밋치나니 良藥、適當한療法만잇스면敢히무서워할必至가업다

近代에잇서서梅毒의 治療法의變遷並注射法의不備

梅毒의病原菌이 發見되야서 以來治療法도 急激히發達하야 六〇六號(살발산)의注射全盛時代를招來하엿다

이注射는 感染의初期에는相當히効果가잇스나 第二期第三期에잇서서는 効果가充分하나지안코 또日常水銀劑蒼鉛劑等의 注射를併用하지안흐면안된다。六〇六號一劑 單獨注射로서再發患者가頻繁히나타나서、二十年間의經驗은『六〇六號注射는 梅毒을完全히治癒하지못하고 單히一劑의 單獨使用은 効果도無한것이라』하는結論을어덧다。

여기에잇서서 새로沃素療法이擡頭한것이다。

法의眞髓를把握하는것

元來吾人의血液中에는 白血球라하는食菌作用을가즌、抗毒素가잇다。이白血球의힘을保持하고增進하면大部分의病菌은 滅殺되고만다。重症用毒掃丸은前述한바와가튼沃素療法에必要한沃素를最大限으로含有한外 白血球抗毒素增殖에必要한 各種貴重成分을配合하야잇슴으로 其殺菌力과抗毒素와는實로天下無比라稱하야 只今에는梅毒治療上不可缺한것이라 고합한다。

最後의一菌이라도殺한 沃素療法의威力

第二期、第三期로進行되는重症梅毒에잇서서는病菌은諸所에巢窟을맨들어서群生하야、그周圍에硬殼을맨들고잇다。注射藥等은血管內에浮動하고잇는病菌에對하야서、殺傷効力을表示하고잇스나、病巢의深部에잇으려서擊退식힌다、그러대沃素는그硬殼部를軟化하야、그內部에進入하야서、殺菌力을發揮하고또病的產物을吸收함으로、極히合理的且理想的의驅毒劑라고賞讚하고잇다。

重症用毒掃丸은沃素療法의 ...

重症用毒掃丸

適應症

初期梅毒 慢性梅毒 潛伏梅毒 先天梅毒 冷毒 小兒胎毒

梅毒性皮膚病 同內臟疾患 同神經痛 同루마치스 橫痃 惡性여드름 動脈硬化 甲狀腺腫

藥價 重症用毒掃丸 二十日分 一圓、三圓、五圓、十圓
普通用毒掃丸 五十錢、一圓、二圓、三圓
小兒用毒掃丸 三十錢、五十錢、一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發賣元 東京市神田區花房町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代理店 大連市浪速町・奉天市加茂町 哈爾賓市八站南馬路 日本寶藥會社

黃昏【11】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네사람(一)

토요일날 석양이다.

려순은 그사이 몇번이나 월사금때문에 경일어머니와 말하려하엿스나 끗끗내 입을 열지못하엿다. 오는 월요일날 아츰까지 월사금을 가저오지안하면 졸업시험을 뵈일수업다는 선생의말을 듯고 돌아온 그는 눈을 딱 깜고 말해보랴하엿스나 역시 입이 떠러지지 안헛다.

요사이는 회사일이 바른참히노라고 그런지 경재이외의온 집식구는 모다 질거운얼굴빗가지고 드설네엿지만 려순 에게 대하야서는 원두쟁이 씨외 보듯 전보다도 더 심상하엿다.

아이 들이나 학교로 보내는터이니까 벌서 월사금 바칠 마지막기한이 온것을 알것이언만 경일어머니는 이러타 말한마디도 업다.

(아마도 준식(俊植)이한테 가 보는수밧게업다)

하고 려순은 다시 그를 생각해보앗스나 오래 차즌일이업는 그에게로가서 무슨 돈말을 끄내기도 심히면구한일이엇다.

준식은그와 한고향사람이다. 뿐만아니라 사립학교에서 가티 공부하다가 가티서울로 고학을 떠나온 사람이다.

시골 사립학교에서 보습과(補習科)를 겨우마치고온 그들은 평소에 공부잘햇단보람이잇서서 모다 고등보통학교에 입학되어섯다.

그때는 아직 재산을 입학조건의하나로 보는 그러한풍이 적엇든관계로 그들은 이난관을 무사히 통과할수가잇섯다.

그러나 미리부터 전전후분이 짱처두엇든돈은 입학한후 얼마되지못하야 거진 밋자리가 들리게되엇다.

그래서 그들은 밤마다 짝장사 호은 약장사를해가며 공부해갓섯다. 그러다가 려순이만은 다행히 지금잇는집으로 와잇게되엇다.

이집 경옥이와 그동생경일이는 려순이가다니는 S학교 부속보통학교에 통학하고잇섯다. 헌데 그어머니가 자식의공부를위하야 공부잘하고 얌전한고등과학생에게 부탁하엿든관계로 려순이가 선생의소개를 바터가지고 이집에 와잇게되엇든것이다.

선생도 매양 월사금이 밀리고 또 기타 학교에서 식히는 벌칠을 그대로하지못하는 려순이때문에, 늘떼업는신경을을 바다까지 가지못하엿다. 허나 주인드린것가리 생각치든차이다 사실보다도 더 조케 보태여서 그집에 소개하여보냇섯다.

헌데 누구보다도 려순이가 그려케되것을 다행히 생각하는사람은 준식이엇다. 허나 가티 큰뜻을품고 서울와서는 준식은 삼학년이되든무렵해 무슨사건으로 그만 출학을당하고말엇섯다.

그리하야 준식은 가두에서 방황하다가 공장으로 들어갓다. 그것이 바로 려순이가 와잇는 김재당의집 회사인줄은 피차 알지못하다가 얼마후에야 서루 알게되엿다.

허나 그들은 자조 만날기회가업섯다 피차 생활이 달려진데따라서 뜻하지안흔사정이 그리운 두사이를 가르막게되엇다.

바로 얼마전에도 려순은 준식에게서 주인을 옴것다는 엽서를바덧스나 엽때 차자갈겨를 을 엇지못하엿다.

그는 돈말도 할겸 몃칠전부터 차자가랴고 별느면서도 한편 주저하는생각이잇서서 오늘 집에서 돈물주지안는이상 그에게박게 말할곳이업는 그엿다.

그래서 오늘은 큰맘을 먹고이러낫다. 고약도 사보내야겟스니 동생의 다친다리를 생각하니잡시라도 더안자잇슬수가업섯다.

그는 경일어머니에게 잠깐단녀온다는말을하고 돌아서 나오다가 중문대문깐에서, 어데갓다가 돌아오는 경재와마조첫다

「어! 가서요?」

하고 경재는 모자를버스며겸손한말씨로 인사한다.

「네 잠시 볼일이잇서서……지금 어머니헌데 말슴햇서요……」

하고 려순은 전에 외출때문에 말성이 되든것을 생각하며 변명하드시 말하엿다.

「아니올시다. 볼일이 게시면가보서야 지요. 늣게 되시겟서요?」

「아니에요」

「아니 늣게 되실것가트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키지요」

「아니애요. 천만에……」

「뭐 그러실거 업습니다. 조금도 념녀마십시요」

하는 경재의진정은 찻늘한세상에서 자라난 려순의맘을 차라리 무겁게 눌르는것이엇다.

「안 애요. 곳단여오겟서요」

「에―또 내일이 공일이니까 뭐……」

그리구는 별로 할말이업스면서도괴차 그자리를 떠나려하지 안헛다.

演藝 映畵界散話 製作期를바라보며 (四)

一村生

어느영화든지 출연배우가 잘해야한다는사람과 감독이 잘해야 한다는 사람이잇스나 물론감독도 조하야하겟지만 출연자연기가 맛당치안흐면 결국이형극에 지내지안는다

또는 배우의인격이나 사생활이 영화의 화면과 아무런관계가 업는듯하나 결코 그럿치안타

마치 공장시찰도 못해본사람이 공장노동자를 주인공으로한 소설을쓴다거나 하는것과마찬가지의 우수운결과를가저온다

〔단장하나〕 집는데 담배 피우는데에서 도 그사람의 전부를 알수잇다 아측까지 조선영화에서는 이것을 생각지안헛다는말이다

그리고 어느때는 남녀배우가 주연까닭에 말성이잇섯고 상대역때문에도 파란이잇슨줄안다 상대역이 평소에는 원수라하드래도 영화나, 무대에서는 아무런 관계가업다 그한예술품의 완성을 위하야 합력하는외에아무런 감정을가진 필요가업다

또 화장가튼데에도 그출연배우자신이 그역의성질을 도모지 모르든 것가치 그저 희게만하야 그 영화는 모두가 녀자요 아무런 차이가업는인간으로 나온것가치보이고 분장에잇서서도 그인물의 생활도모르고 그저A라는 배우가 B라는 관객에게 자긔를보이고저한것이요 결국그 영화에나오는 이물이

〔관객에게〕 무엇을 주느냐는것이업는 때가만허섯다

더구나 녀배우에게잇서서 이러한예를만히본다 이것은 결국 감독의 부주의 무통제 더말하자면 영화를한 회하적물건으로 안사람이 잇섯기때문이다

적어도 은행두취라든지 저―알하급은행원까지의 전부를다―알기전에는 영화에 은행두취나하급은행원을 내여놀수가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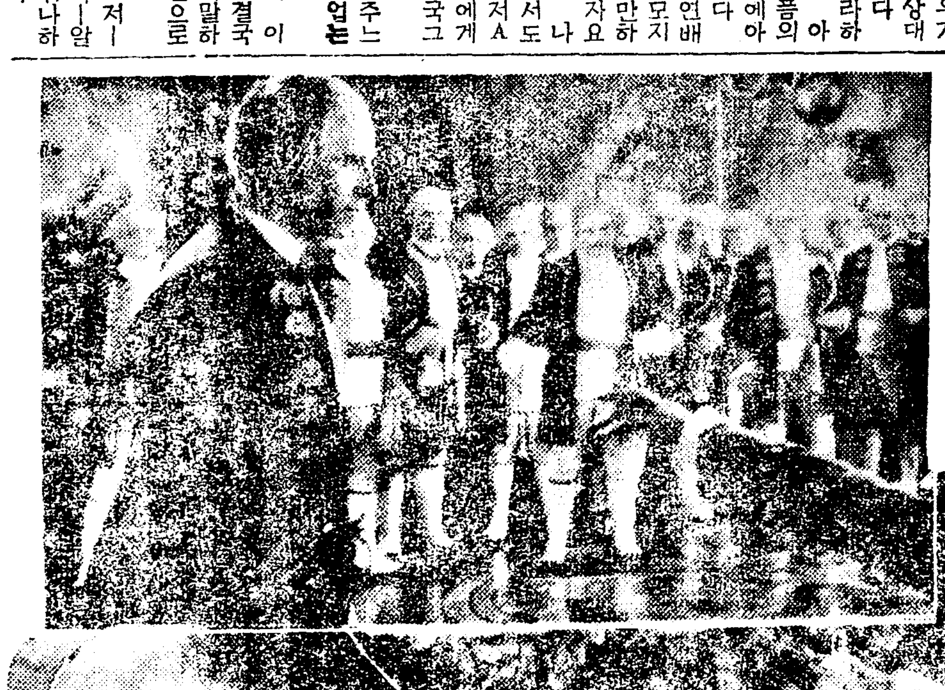
그역의 변영 그계급 건강 그인물로서의 습관 교양 가튼것 또는 그인물에게 잇슬수잇는 특증이 드러나지안는 영화가만헛다

「인테리」청년이라면 의례히동경으로좌충이나 종노통카페―로출몰하는

〔부랑자격〕의 분장을식히거나 영화에 나오는인물은 남녀를물론하고 머리를 아프리카토인가티 볼에지저서 조금도 조선영화가아닐수잇는 영화를 가지고 「이것은 조선영화요―」한때도 잇섯다 이런것이 근일에와서는 조선영화에서 업서지는 모양이나 그러나 참으로 「이것은 조선영화요―」할만한것이 만치안흔것이 섭섭하다

감독, 배우, 이두주요한 부분의 인물들이 이사회에구석구석을뒤저서 조선에는 어떠한사람이살고잇고 그들은 어떠한 생활양식과 그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케 사라가는가를 눈이짜저지도록보고 그들의 친척 그들의주택, 그들의부엌속, 그들의 바누질그릇속 그들의 잠자는얼골 우는얼골 웃는얼골, 초상난집의 모든것들을흔들을 보지안흐면 안되고 그들을 일일보내보지 안흐면 안될것이다 이래서 어시호 정말조선영화가 나올것이다

에밀야닝스捲土重來



祖國獨逸로 돌아간後 一時잠잠히잇든 名優에밀야닝스다시만흔作品을生産하고잇다 그主演의『푸러시아旗風』下左는 그의近影 下右는그主演의『호령하는입금』

羅雲奎와申一仙 前날演技로돌아가라

金晟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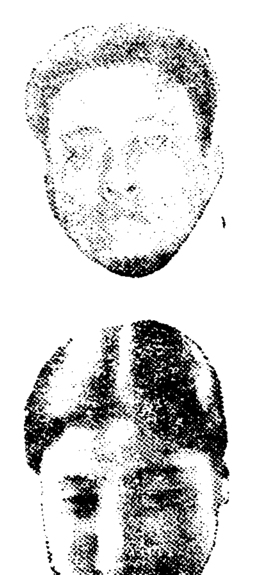
十月會全盛時代의 俳優中―(오래도일이라 그들의일홈은 거의 다 이젓스나)―에 優秀한사람이 만헛다고 生覺합니다。그後 朝鮮劇壇이 沈滯되엇슴인지? 或은 나의感覺이 銳敏하여젓슴인지? 演劇이나 映畵를通하야 그當時에 내가바든感興과刺戟을 줄만한 名俳優를 發見치못하얏습니다

『春香傳』『가난이의설음』等우리의現實에卽한 훌륭한演出이엇다고記憶되며 李白水氏 石金星孃 金蓮實孃等 가장 熱誠한 演技를보이어주어 好感을 가젓든 俳優들이엇다고生覺하고잇습니다 이분들은 至今에 어데로 살아젓는지? 좀더劇界에獻身하야주엇스면하는希望을품기도하나 이것이無理한要求인것을 次次 깨닷엇습니다。우리社會의 모든事業이 다그러하지만은 劇運動도 經濟的條件이 恒時滿足치못하야 俳優들의 生活保障을期約하지못하므로 優秀한人材가 間間出現하야도 그生命이 自然짧어저서 轉向、消滅하고마는것은 愛惜한일입니다。이點으로보아서 十月會以來 가즌苦楚를 다격거가며 꾸준히 至今까지 活躍하고잇는 李素然朴齊行 卜惠淑諸氏의 努力에對하야는 驚嘆 感服하지아니할수업습니다。朝鮮劇藝術의 啓蒙者요 元老格인 그들의 業績은 功一級에相當하니 將來에큰『세아라ー』가建設되는날에는 諸氏의銅像을 만들어서『홀』에裝飾함이 맛당할가 합니다。

映畵俳優는 더욱混頓하야 特別히 印象에기픈 사람이업습니다。羅雲奎氏 申一仙孃은『아리랑』을보앗슬때 매우好感을가젓드니 그後의作品에서부터 興味를 일허바리엇습니다。最近『아리랑』三編(토ー키)이作成되얏다기에 無限한期待를가지고 初日에 쪼차갓드니 映畵館入口에다가맛치 移轉廣告나忌中廣告와가튼 上映中止의『삐라』를보고 몹시失望햇습니다。그代身에『당게사정』(丹下左繕)上映은 너무나 허니쭈(皮肉)이엇스며『우파』作品으로는 近來드믄 拙作인『綠蔭境』을 보다못해서 中間에 不快히 나오고말엇습니다 이날밤 나는 朝鮮映畵製作者의苦痛과悲哀를 一層同情하고 이가튼 豫期치못한 變事가 얼마나 斯業發達을 阻害할것인가를 切實히 늣기엇습니다。

付託바든 『레ー마』에서 너무 脫線하얏습니다。期於코 現在男女俳優中에서 꼭한사람을 골나내라면은 나는 沈影氏를 推薦하고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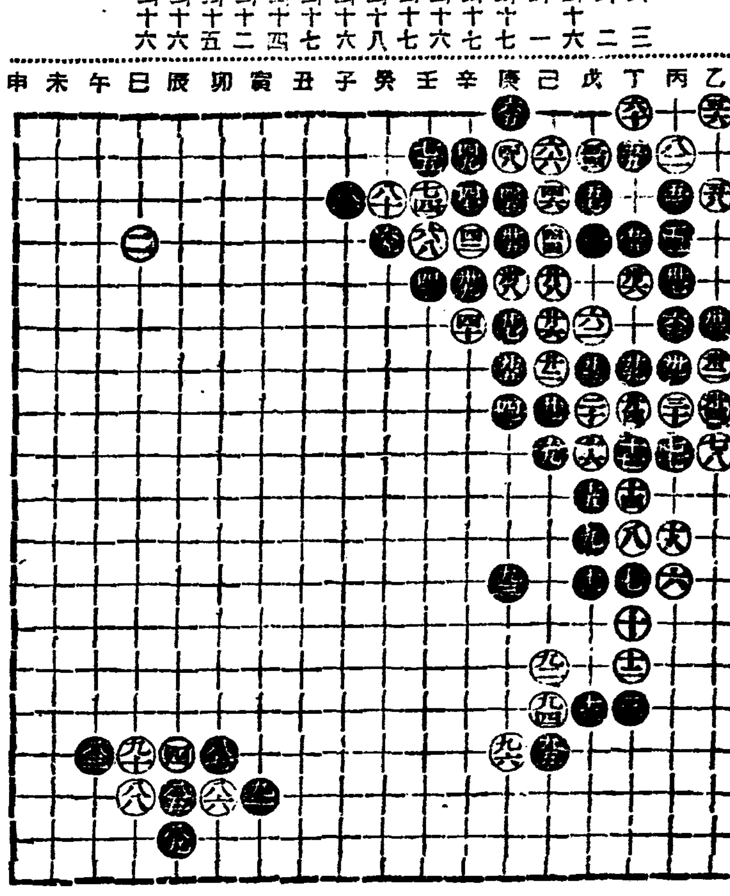
動機와理由를 구태여 말할것도업겟지요。내가본 限度의現在俳優들中에서 그의流暢한臺詞、輕快한動作、그리고 新鮮한諧謔味가 내食性에 꼭드러맛는다고나 하야둘가요。



寫眞上은 羅雲奎下는申一仙

圍碁對局譜 ―6―

白 權秉都
黑 張基歡



● 八一 子의三
○ 八二 丙의二
● 八三 午의十六
○ 八四 甲의一
● 八五 戌의十七
○ 八六 卯의十七
● 八七 卯의十六
○ 八八 巳의十七
● 八九 辰의十八
○ 九〇 巳의十六
● 九一 寅의十七
○ 九二 己의十四
● 九三 庚의十二
○ 九四 己의十五
● 九五 己의十六
○ 九六 庚의十六

◆榮極文談

黑이 丙의二劫을 白에게 讓渡하고 午의十六으로 辰의十六 白牽制할思想이다 黑은 辰의十七 白은 卯의十七 黑이 卯의十六으로 白後被斷함은 誤算이아닌가 巳의十七로 順延하야 先手를 取하면 左右行動에 餘裕가 自在커늘 耳角攔能이 白에게 反歸하니 時勢推移는 無緣輕動이나 誠不可預度이로다

色다른映畵人紹介 (5)

정글映畵의創始者 마―틴쫀손의夫妻

마틴、쫀손夫妻는 아마 정글映畵製作에 가장 먼저 着手한 사람일것이다。벌서 無聲映畵時代로부터 그이름을 世上에 내여노키 시작하얏다。그러나 토ー키時代가된以後로도 그의名聲은 조금도 떨어지지안는다。오히려 漸漸더 그聲價가 노파간다고 보아도 無妨하다。無聲映畵時代에잇서서는 메리암、시、쿠파라든지 아네스트、쇼드색이라든지 모다 그의 好敵手엇섯스나 지금 그들은 킹콩이나 洞窟의女王가튼것을 製作하도록低下되엇다。또 토키時代로 들어와서는 푸랑크、빡이라는 强敵이 나타나 잇스나 아즉쫀손夫妻의 信望과 겨루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本來정글映畵란 가장 거짓말을 하기 쉬운 것이다。녯날의 정글映畵를 어쪽 저쪽 주어모으고 거긔다가 動物園의撮影을매장 너허서 堂堂하게 어느해년분 誰某氏의大冒險撮影이라고 宣傳하는 것이 過半數다。또실상정글에 가서 實寫를 한대도 問題가만타 撮影할만한實況은 다노처 바리고 그저 平凡한場面만 가지고 와서는 무엇이 어쩌니 어쩌니 떠든데서야 아모 소용이 업슬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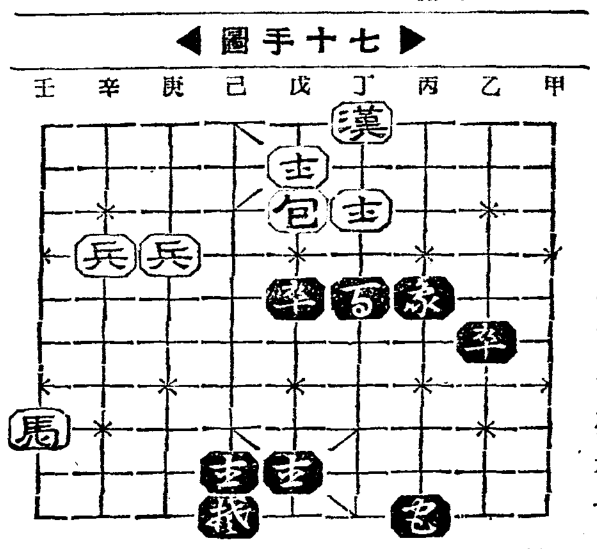
그런데 쫀손夫妻는絶對로 그런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더구나그는 技術을 아조잘利用하야 可能한限度까지 實況을 全部 畵面속에 잡아 너코잇다。단지그의 映畵는 오죽 아푸리카 정글에 限한다。그래서그以外에는 도모지 손을 댄것이 업다。

將棋名手對局譜 (八)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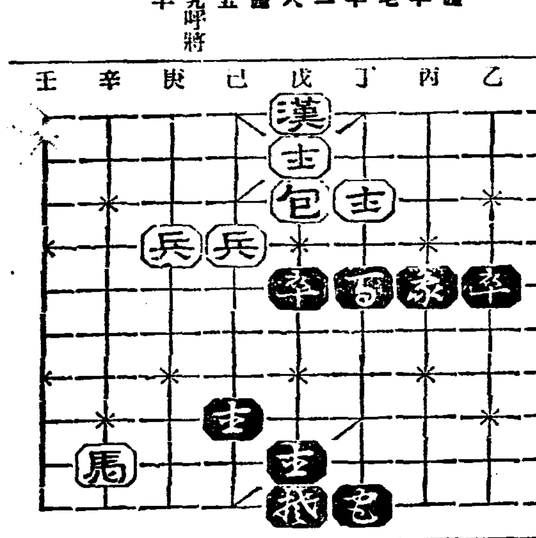
漢手先 減一兵 李在鳳 楚 金漢榮

◀七十手圖▶



◀八十手圖▶

庚四兵―己四
丙十包―庚十
壬八馬―庚七
庚十包―丁十
丁一漢―戊一
己九士―己八
辛四兵―庚四
乙六象―乙五
庚七馬―辛九呼將
己十士―戊十



三浦女史獨唱會 音樂社서主催

音樂社에서는 日本樂壇의 노픈地位를가지고잇는 三浦環女史를 招聘하야 獨唱會를열기로 決定하고방今그準備에 紛忙中이다。時日은 三月一日頃이요 場所는 府民館으로할豫定

라디오

十七日(月曜)

◇午後六時 童話 秦金星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小商問題에對하야』 朱泰道
◇同七時三〇分 勸儉貯蓄週間(三) 中樞院參議 韓圭復
◇同八時 白鷗詞 歌詞 一、將進酒 二、 金花香 金蕉紅 大笒 金永根
◇同八時三〇分(東) 獨唱과管絃樂 獨唱 德山璉 管絃樂 新交響樂團 指揮 니코라이・시퓔푸라ー트
◇同九時 連續野談 "勿尾杖"(二) 申鼎言

第一放送

◇午後六時(仙) 어린이時間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常磐津
◇九時(東) 漫藝

十八日(火曜)

◇午後〇時五分 늘냥外 一、놀냥 二、압山打令 三、뒷山打令 李命山 李命吉 卓福萬 金泰運
◇同三時一五分 趣味講演『史上의女性』(西洋篇) 金庠基
◇同六時 노래공부(二) 一、아침일곱시 金永壽詞…玄雲曲 二、밤마다…金桂淡詞…同曲 外 玄雲 寶德兒數名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佛說大乘戒經』 金泰洽
◇同七時三〇分 講演『最近의科學界』 李萬珪
◇同八時 流行歌 一、갈대꽃…金壽卿作曲 二、연지의그늘…同 三、고달픈신세…同 四、벌거대머리…羅素雲作曲 五、無情…金壽卿作曲 六、말잘하는사위…羅素雲作曲 七、人生은三十부터…同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全水南 DK管絃團 一、短歌 老人歌 二、唱劇調 沈淸歌 鼓手 韓成俊 方應敎
◇同九時 靑律 一、平調會像 二、吹打 三、與民樂 奚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婦人의時間
◇午後〇時五分(東) 音曲
◇同一時 家庭講座
◇同六時(東) 少年音樂講座
◇同六時二五分(東) 靑年의時間
◇同八時(東) 陸海軍의밤
◇同八時五〇分(大) 라디오・드라마

曆

二月十八日(火) 正月建庚寅大(廿六日) 庚午・土・室・定

●祭祀冠帶時剋은卯時坐向은西北嫁娶移徙裁衣上樑卯時開市納財安葬에宜함
●立春五日(舊十二日)
●雨水二十日(舊廿八日)

頭腦가明快해지고 根氣强壯體力持續

아무리金錢이잇더라도選擧에는 몸을酷使함으로 머리가疲勞하고根氣衰退、體力이持續치못함으로 드듸여落選의悲痛을맛보는일이잇스나 나는相當히不規則하게 食事를하고아츰일즉부터밤늣도록까지奔走하야往往히 徹夜까지하나 아무치안케根氣잇게버틔고 나가나언제나 머리는明快하고몸이持續되는것은滋養强壯劑의養命酒를每日愛飮함으로몸이內臟부터 튼튼히되고精力이肉體에넘처서잇는것은그恩德이라고生覺한다。

小瓶進呈

貴重한深山仙酒로서芳香美味하야 먹기조타는것을 紹介하기爲하야 養命酒試飮用小瓶一本을 無代로送呈하오니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 고葉書를보내주시요

感氣한번안걸이고 튼튼한몸이되야實로놀내엿다

堺市 深田芳夫

新聞廣告藥! 그것이무슨効力이잇나! 벌서自己는 廣告에나는藥은大槪다먹어보앗지만別로그러타할것이업서서갈팡질팡하든 經驗잇는者이다 自己는 二十數年來胃腸이 납부고 心臟은 弱하야서困難하엿스나 廣告에난藥이라고는信用을못하고잇든바 友人으로부터四年前에養命酒의効果를稱讚바덧스나 그것을一蹴하여버렷다。그러나今日에는 한번體驗的으로飮用하자고하야八月末부터養命酒를飮用하엿든바、임의醫師는 몸을못견지겟다고宣言을바든몸이엿스나、一個月後부터는몸이속에서부터참다운健康의빗이흠너나와서 十月中旬頃에는健康하기比할데업고感氣한번 안걸엿슴을튼튼하여저서 實로偉大한効果에驚愕할바게업고、信賴한마음養命酒를永久히먹기로하고養命酒를、겸어노앗더니 이것을보고友人이一笑하엿스나도리혀그들에게勸하엿든바비로소効果잇슴을 體驗하고다가치、愛飮家가되엿다。自己는現在時詩家로서詩吟獎勵會를大阪에設置하고잇는關係上 養命酒에依하야身心의疲勞를充分히恢復하고活社會에躍進하게되야서與心으로깁버하고、一層普謙呈하는바이다。그同時에益益世間에그効果를宣傳하고 恩惠를갑기로決心하엿다 (十年十一月二日受附 寫眞은本人)

滋養强壯劑로……

◆貧血冷病잇는분
◆胃腸衰弱한분
◆强腦强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不眠숨갑분사람
◆呼吸器弱한사람
◆疲勞倦怠한사람
◆根氣薄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産前産後의婦人
◆病後恢復期 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三圓 德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음

品切될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시옵
送料無料實費代金引換도送料實費부담합니다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舘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三九八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注意 가짜가잇스니 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意하시고사시옵

란포마―드

ランポマード

당신들의理想보다훨신超越한
ランラン의자랑高貴의品格

咸南의工場勞働者 勿驚！二萬六千餘

勞賃은最下五十錢平均으로 物價高로極困狀態

【咸興】 작년말현재 함남도내공장총수원수는 총이만륙천사백륙십명으로서 그중공장의 …천사백오십구명이 …고잇스며 안변(安邊)의 … 백팔십사명 북청 … 입백구명 함흥의 … 백사십오명의 … 임금은 평균하여 … 에 오십전내지 일원이삼십전까지 로된다고하는데 물가는 가속도로 등귀하는반면 로임은 전대로 이상되지안흠으로 혹심한생활고에 쫏기고잇는 현상이라한다

師範校入學志願 六對一의比例

【全州】 남산의 전주사범학교는 소화십일년도로 확실히 설립케 됨과동시에 현재 청년훈련소(靑年訓練所)자리에 림시로 간판을 부치고 초년도경비 십삼만원에 산까지 수립되여 방금 강습과 이백오십명은 경성사범학교에서 모집수험중임으로 그입학지원률은 잘알수업스나 전주에서 모집중인 심상과(尋常科)정원 백명에 지난이월십일현재로 오백구십륙명의 응모자 근륙백명을채용아동 백명에대한 비률을본다면 륙대일(六對一)의 처참한수자를 내고잇서서 사범학교설치 초년도부터 입학난을 면치못하게되엿다고한다

外財進出等刺戟 仁川地價急昂騰

市內에는最高坪當二百五十圓 郊外도一躍三四倍

【仁川】 문자그대로약진도상에잇는인천의 제반시설은 초『스피드』의발전을보이여 일본내지의공장도인천을중심으로 금거출동을하야발서 신호인조(神戶燐寸)등은 기지를매입중에잇서 지가는 예상이외에 등귀하야 시외에는 매평칠팔십전하든지가가 일약삼원이상이되는 현상이다 이제시내에서 매매되는 지가를본다면 최근중정(仲町)송무(松茂)정미소근방이 매평이백오십원에성립되엿다하며 현인천시내의 전구지가를 삼년전의합계와 현재를비교한다면 실로일천사백여만원의 차액을남긴다하니 약진인천의가장큰현실을 증명하고잇는것이라 한다

◇……道界記友俱樂部創立紀念撮影(陝川)

南原農業專修問題 陳情內容一部容認 上道委員의陳情奏効

【南原】 오는 사월을기하야 개교를보게될 남원농업전수학교(南原農業專修學校)는 그학교내용이 지방의기대와멀어 상반한점이잇서 저간도당국에 진정위원을파견하엿다함은 기보한배어니와 지난 십오일오후한시에 동교기성회에서는 읍사무실이층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고 읍장리정근(邑長李正根)씨로부터 상도전말을보고한바잇섯는데 그요지를들으면 지방에서 요구한 년령제한철폐문제와 기숙사사옥조집반대에 관한문제는 확실히 진정이주효되엿스나 생도중모문제만은 다소완화할가능이잇다는것이엇다 그래 동기성회에서는 읍장의보고를 승인하고 좌과사항에대한 토의가 잇섯다한다

一、落成式祝賀會開催問題
一、敷地及廣告地未買收分問題
一、基金不足額募集問題
一、學校道路新設問題

慶北佛協創總 十五日開催經過

【大邱】 경북불교협회창립총회는 십오일오전십일시부터 대구덕산정동화사포교소대법당(桐華寺布敎所大法堂)에서 발기대표황보응(黃普應)씨 개회사로 개회한바 오본말사(五本末寺)대의원 일백삼십일명이 참석하야 회원전명을진행하는중 회원자격심사문제로 의론이백출되엿스나결국발기회의 원안이 가결되엿스며 림시집행부는 전형위원으로써 전형하야 선거하니 의장에 최인택(崔仁澤) 부의장 차응준(車應俊) 서기 김교상(金敎尙) 조용격(趙鏞璥) 사찰 권한경(權漢境) 박성하(朴性夏) 씨가 호선되엿고 발기취의원강유문(姜裕文)씨의 취지설명이 잇고 발기회 경과보고가 잇슨후 오후한시반 휴회하엿다가 오후세시에 속회하고 회칙(會則)은 회장제(會長制)를 중심삼은 그 초원안에대하야 수항을 수정하야 만장일치 가결하고 회치에 의하야 임원을 다음과가티 선거하고 오후팔시반에 폐회하엿다

會長朴度洙 副會長李景宇 庶務委員李觀光 宗務委員韓佳動 雜院部委員尹寶洞 教育部委員金洛淳 布教部委員姜裕文 儀式部委員鄭基琮 社會事業部委員鄭斗石 財部委員金龍錫 補欠委員徐在鈞 金敎尙 金海潤

阿片密輸主犯 格鬪끄테逮捕

【新義州】 괴보＝신의주경찰서에서 검거한 일단십륙명의 아편밀수단중 십오명은 송국하고그중에 주범을 체포치못하여 그간엄중수사중이든바 지난십삼일 오후시경 부내 고등보통학교 부근을 통행하는 거동이괴상한 자를 형사두명이 발견하고 약삼십분가량 격투한후 체포하야 취조한결과 성진군학상면송흥리(城津郡鶴上面松興里) 농업학교출신의아편밀수 전과 사범 김학룡(金鶴龍)으로 동사건의 주범으로 아편오십오판을 밀수한것을 자백하엿고 자백으로 인하야 부내에 잠복하여 잇는 공범두명도체포하야 목하 엄중 취조중이라한다

清津公設市場 增設計畫立案

【淸津】 청진부동해안일대는 중부시가지와는 동이떠서 발전상 문지장이잇슬뿐아니라 당국에서도 그러과실지안터왓스나 서부청진이 정차로발전됨을따라 동방면은 점점한산해지는 반면에 동부군 주민들은 동지중앙지대에 로점(露店)을 버려서 완연 시장과가티 번화한데 길가에서 음식물을 내여노코 팔기때문에 위생상좃대 문제거리이든바 금번 당국에서도 이것을깨닷는동시에 동해안방면의 발전과동방면 주민의 편의를 도웁기 위하야 동방면의 중앙지대인 수정(壽町)에다 공설시장을 개설하려고 본년도부예산에 계상하야 발굴 입안중에잇다는바 장소는 중앙리발판입에잇는 부영주택이호를 개축하야 건평일백삼십오평의 시장으로 건조할예정이라 한다

稅關吏의또暴行！

無辜한通行婦女를붓잡아 毆打、咬傷氷上에昏倒시켜

怪！脫線的密輸取締

【安東縣】 지상에 루루히 보도되괴가티 안동세관이는 밀수취체를 빙자하고 월권적 행동이 만히잇서서 비난이 자자하든바 또밤중에 통행하는자의몸에 밀수품이잇다고 삼사인이 달려들어 몸을뒤졋스나 아무것도업는 무고한녀인을 구타교상(毆打咬傷)하여 빙상에 혼도시킨후그 녀자가 가지고가든 집(藥)을뭇을 살라 업시한 사건이잇섯다—동 사건의 주인공은 신의주 부의 북하동(北河洞)에 사는 과부류씨(劉氏)(三七) 로서 지난 십이일밤 안동현 구시가 임강가(臨江街)에가서 집(藥)을 사가지고 집으로 도라오든중 압록강 녀상에서 전긔세관리들을 만나서 밀수품이잇다고 가진주체를 하엿스나 아무 밀수품이 업슴에도 불구하고 구타하고 사격세 파든날 를 불러서 교상혼도 시킨후 그녀자가 가지고가든 집에 물을노코 감사실이 잇섯다는데 그녀자는 겨우집을 차자갓스나 입원할돈이 업서서 신음하는것을 근처 사람들이 보고 이에동정하야 입원치료중인데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그녀자는 동세관리 사명을 걸하여 안동경찰청에 고소를 제긔할준비를 하고잇다한다

多年間懸案中의 咸興公堂近近着工

總工費十五萬圓으로

【咸興】 함흥부의 명년도예산안중 중요한신규사업에드는 공회당(公會堂)설치의 긔채(起債)와 도시계획라한차로 총독부에올나갓든 판은함흥부윤은 십오일아츰차로 귀임하엿는데 그절충한 결과를들어보면 공회당건설비십이만원과 수도확장(水道擴張)확장터의주택지설정등의 합계 이십일만원의긔채는 대개용인되엇는데 공회당은 사월중에공사를착수하리라고한다

그리고 도시계획에관하여는 가장 주요한문제인 함흥역(咸興驛)이전비 일백오십만원중약삼십삼만원의 긔채를엇지안흐면안될형편인데이것은 회계검사원의 관계도잇고하여 확답을엇지못하엿스나 조만간 대구、인천、부산에 버금하여 사오월경에는 정식으로 부회의자문에 부치게될 형편이라는데 이로인하여 대함흥건설의 날도 멀지안타고볼수잇스며 다년간요망하든 공회당건설도 실현을 보게되엇다한다

西門通道路新設 十一萬圓計上

【平壤】 평양부내 구시가서문통(西門通)에서 보통문(普通門)에 일으는도로는통행인의 번잡한반면로폭이좁아 불편이 만튼바인데 이 도로는 장래의 전차와 빠스의 예정선인 만큼 평양부에서는 명십일년도예산에 십일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도로에 병행하는 길이오백미、폭이 십일미되는 대도로를 신설하기로 되엿다한다

普校學級增設에 三百圓을喜捨

【元山】 노래와웃음을 팔아서고달픈생활을 해가는 기생의몸으로서 보통학교학급증설에 써달라고 삼백원을 희사한 도새전선에서 보기드믄 가화(佳話)가 잇스니 그주인공은 원산기생게에서도 일홈이 놉흔 송화선(宋錦仙)이란 기생이다

이제 그사실을 들어보면 원산에는 년년히 미취학아동이가두에서 방황하는 한심한터이므로 원산유지제씨는 원산에 제삼보교설치를 당국에 요청하고 오든터이나 재정관계상 용이히 실현되지 못할것이라고보아 위선 긔설학교에다 학급이나 더 증설하야 입학난을 완화해 보려는 의도하에 작년부터 원산제일공보교에 일학급을 증설코저 동교학부형들 중심으로 긔부금모집을 하는일방 당국에학급증설신청을하야왓다는데 이운동을 본 전긔 긔생은 평소에 저금하야두엇든 삼백원을 차저서 긔증하얏다고하는바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古蹟保存의功勞者 金性學氏表彰碑 "수시갈"一萬個를모아鑄造

【釜山】 이천년의 력사를 가지고 사적(史蹟)으로 유명한 김해(金海)소재의 가락국왕릉(駕洛國王陵)은 장구한 성상의 춘풍추우에 극도로 퇴락되여 잇슴을 일반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잇든바 부산부 범일정(釜山府凡一町)김성학(金性學)씨는 분연히 느긴바잇서서 유적 보존사업을 뜻하야 사재 이만여원의 거액을 투하야 수축을하게 되여 면목을 일신케하엿슴으로 일반은 그긔공지를 장하게 여겨 씨의사업을 영구히 긔렴하고저부산화수계(釜山花樹契)의 발긔로 만가일시(萬家一匙)의 계획하에 수저(匙)일만개를 모아서씨의표창 주비(鑄碑)를 건립하기로하엿든바 원근이 이미 찬동하야 이미 예정수대로 수집이 되엿스므로 오는삼월중에 김해 왕릉전에서 건립식을 성대히 거행하리라한다 ◇寫眞…金性學氏

公金을橫領하야 遠走途中被逮

【馬山】 창원군 진전면기수(昌原郡鎭田面技手) 리종수(李鍾秀)는 그의가정이 불화한관계로 이를 도피코저 여러가지로 꾀한결과 만주(滿洲)로 다러날생각을하고 면공금중잠종비(蠶種費)이백여원을 횡령하야가지고 만주로고비원주하든도중 천우를 맛나고저 밀양읍에 잠복하야잇다는것을 밀양서원이 탐지하고 체포하야엄중취조중에잇다는데 횡령을 엇고저 밀양서원이 출장하야진전면사무소의 장부를 검열次 사여갓다한다

李孝婦表彰式

【禮山】 충남례산군삽교면두리(禮山郡揷橋面頭里)에 거주하는 강신의씨 부인 리계순(李桂舜)씨는 시부모에게 일상 효성이 지극하다하야 동민은 물론이고 인근동내에까지 그지극한 효행에찬성이 자자하든바 불행이도 요지음에와서 그식부는 불치의병마에걸려 생의여망이 전무한동시에 극히 빈궁한생활로인하야 … 다는소식이들니자 동리유지 장학삼(張學三)양의환(梁義煥)씨등의 발긔로 지난십일에 동면면사무소내에서 이백여동민이 집합하야 성대한 표창식이잇섯다고한다

元山測候所에서 氣球觀測實施

【元山】 원산측후소(元山測候所)에서는 금년도부터 긔구관측(氣球觀測)에 대하야 실시코저 준비중이던바 지금십삼일 좌세보(佐世保)항공대가 내원한 그회를 리용하야 십삼일오전사시반과 오시반 량차에 궁하야 실험하야본결과 매우호성적을 어덧스므로 래사월부터 결정적으로 실시하게되엇다고한다

嫖父母男便共謀 十七歲少婦打殺

谷山郡下閑達里에서

【谷山】 지난칠일 곡산군 동촌면 한달리(谷山郡東村面閑達里) 산간의 외따른집에서는 십칠세의 어린며느리가 가장 밋는 시부모와 남편의 무지한 매를마저 비참히 죽어버린일이잇다。

이제 그자세한바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곡산군 동촌면 한달리(谷山郡東村面閑達里)김길호(金吉浩)는 수년전에 김성녀(金姓女)(一七)라는소녀를 잇며느리로 다려와 항상 미워하야 욕하고 따리기를 거이 끄칠날이 업던바 지난 십칠일은 아모도 보지못하는 곳에 마츰내 참혹히 따려죽여 집압 산골속에 내버리고 나무로 덥허버린것이 최근에 발각되여 드되여 곡산경찰서에 체포되여 엄중한 취조를 밧는중이라한다。

全江華庭球戰 空前盛況일운

【江華】 괴보＝본보강화지국후원으로 강화길상공보교동창회(江華吉祥公普校同窓會)의 주최로 제사회 전강화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 십삼 사 양일간 모교교정에서 개최하얏던바 예상이상의 대성황을 일우워 과연 강화에서는 처음기록인 참가단체 십사점으로 정각이되자 대회회장 조종규(趙宗奎)씨의 개회사와 주심 김윤순(金潤順)군의 심판에대한 주의가 잇슨후 대회를 진행한결과 우승의 영예는 상승장군인 동창팀이 련사년을 이어 우승하얏다 한다

◇寫眞…同庭球大會의優勝團

群山署突然活動 請負業三名拘禁

問題는더욱擴大될듯

【群山】 군산경찰서사법계 형사대는 지난 십오일미명에 사방으로 손을 나누워가지고 질풍적으로 군산에잇서서 우수한 일본내지 토목청부업자(土木請負業者) 삼명을 구금하얏다 한다 내용은 극비에부치므로 알수업스나 문제는 의외의 방면으로확대할것가트므로 일반은 그의진전을 가장주시 한다고한다

地方人事

▲朴永柱氏(郡廳商務課在勤)商州郡榮轉人事次本報醴泉支局來訪
▲鄭鎭彥氏(醴泉郵便所主任)新任人事次本報醴泉支局來訪
▲李起煥君 東京第一飛行學校歸省人事次本報醴泉支局來訪
▲丁千年(全羅南道產業技手)潭陽郡赴任人事次本報潭陽支局來訪

"택시"와正面衝突 行人二名死傷

釜山府外釜田里에서

【釜山】 요사이 자동차사고 빈발하야 각관계자들의 신경을날카롭게하고잇든데 지난 십오일오후사시경 부산부외서면부전리(西面釜田里) 서면주재소에서남쪽으로 약오백미돌지점 가두에서 동면동리 박문관(朴文寬)노동 김조룡(金曺龍) 량명이 북쪽으로 향하야 통행중 부산영주정(瀛州町) 양산택시 경남일천칠백이십오호를 운전수 류화선(劉華善)이가 운전하야 북에서 남으로 향하야 오다가 전긔장소에서 정면충돌을하야 전긔 박문관은두부외전신에타박골절상(打撲骨折傷)을 당하야즉사하고김조룡은 역시골절상으로 빈사의 중상을당하얏는데 즉시철도병원에 수용하야 응급치료를 하고잇스나 생명이 매우 위독하다는데 이급보를접한 부산경찰서에서는 암전수사주임(岩田搜査主任)이하 형사대가 출동하야 현장을림검하고 운전수류화선을 인치하야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약한첩(?)지못하는현상이든바 전긔효부 리씨의 극진한성심으로 시부의병마가 날로퇴치되고 잇

異次頓의死 【98】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악인은 입으로 선인모양을 꾸미는것이아닌가』

하는 상감의 말슴이 알공에게는 마치 제 뒤통수를 내려갈기는 쇠몽치와 가탓다。

『지당하오신 말슴이오』

하고 공목이 아뢰인다。

알공은 상감의 말슴이 자긔를 가라치인줄 알기때문에、여튼 피에、

『이몸의 오직 바른 말슴만 아뢰오。이몸의 속을 상감마마 압해 뒤집어 보이쉽고십허라!』

이러케 말하엿다。

『오 공목과 알공。이녀의 속을 두집어보입 날도 멀지 아니하지』

하고 상감은 알공을 보신다。

『황송하오나 어찌하온 분부시온지?』

하고 알공이 약간 고개를 들어 상감을 우럴어 본다。

『못 알아듯는가?』

하고 상감은、

『공목이나 알공이나 다 머리가 희뜩희뜩하엿스니 죽을 날도 멀지아니하엿거든。누구나죽으면 업거울 압해 서는것이어든。 사람의 혼이 업거울 압해설때에는 일생에 마음속에 감초앗던 모든 업이 악한것이나 선한것이나 다 그 업거울속에 비초인다 하거든。속이려하여도 속일수업는 그 날。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다 속여도 그 업거울은 못 속인다 하거든。그리고 그 업거울에 비초인대로 제 보를 바다 혹은 증생으로、혹은 지옥룰시구렁이와 기름 가마에 혹은 한울에 혹은 인간에 태어난다 하거든。거짓말을 하던 혀는 찌저서뽑아서 유황시물에 태워버린다하거든。공목과 알공아!이녀네도 업거울압헤 설날이멀지아니든거든칠십년 싸은 죄를 뉘우쳐봄이 어떠할꼬? 이몸을 속임도 맷백번 맷천번、백성을 속임도맷백번 맷천번、울흔 사람을 모함하야서 혹은 옥에 둘게하고 혹은 목숨을 일케한것도 맷백번 맷천번。몸이 나라의 높흔 자리에 잇서서 나라시녹을 먹으면서 일즉 일금이나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잇섯던가 밤낫에생각하는것이 어찌하면 올흔사람을 몰아내일까、어찌하면 권세잇는 사람의 비위를맛출까。어리석고 어두운 이몸의 비위를 맛초기 삼십여년에 이제와서는 이몸이 늙고 병들어 압날이 길지못할것을 보고는 다른 사람에게 부터、형제의 인륜과 군신의 인륜을 배반케 하랴고 밤낫에 음험하고도 간교한 꾀를 내이기 벌서 사오년。그만하면 죄악이 관영할만도 하건마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야 늙은것들이 죄업는 사람을 몰아서 함정에 빠트리랴고 그러는고。

『공목이손과 알공 한아손아! 이녀의 무리가 나라에 지은 죄로 말하면 당장에 목을 버혀 만민을 징계할만 하건마는、선마로는 이몸의 동긔、이녀네는 아바마마쩍부터 오는 늙은 신하。참아 그러지도 못하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음이 발로 들기를 기다린것。또 도리켜 생각하면——더구나 부처님의 가라치심을 듯자오면 모든것은 다 타는것도 이몸의 업보。울흔 사람은 멀어지고 간사한 무리들이 가까히 오는것이 다 이몸의 업보。책망할것은 이몸 스스로라하야 날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바여니와 이녀네도 인생의 압날이 멀지아니하엿스니 마음을 바른 길로 돌려봄이 어떠할꼬? 그러치도 못하겟거든 세상에 나오지말고 가만히 집에 숨어잇는것이 어떠할꼬?』

하고 두 사람을 나려다보시엇다。

공목과 알공의 입에서는『황송하오』하는 말이 나오러하엿스나 입이 열어지지를 아니하엿다。『집에 숨어잇스라』 하십은 벼슬을 고만두라 하시는뜻임을 두 사람은 잘 안다。그 분부는 두 사람에게는 청천벽력이엇다。어떠케 그러케 내야하신 상감께 이러한 단단한 처분을 하실 용긔가 잇슬까 하고 알공은 이차돈의 세력이 이다지 큰것에 놀래엇고 공목은 알공때문에 공연히 벼슬이 떠러지게 된것이 심거웁고도 분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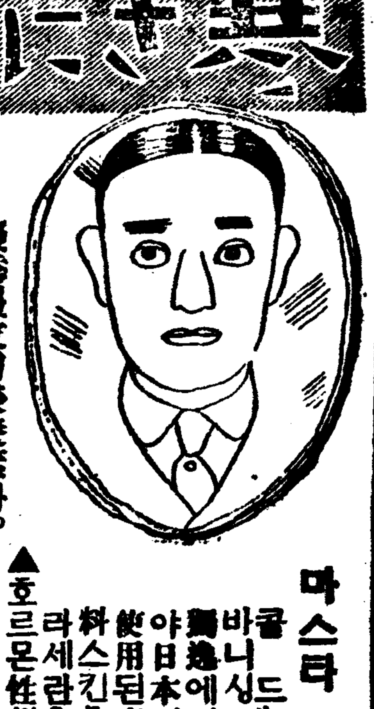
두 사람이 어려린채로 말이 업는것을 보고 상감은

『공목과 알공아。고개를 들어 이몸을 보고 저벽에 모신 거룩하신 부처님을 넘옴고 봇지비하신 부처님을 우러러 보라』

『이 몸아오기를 빌어보라』

하시엇다。

寒さに負けぬ肌
マスター コールド クリーム
마스타 — 크림



마스타 콜드 바니싱에配合된 獨逸에서發明되야日本에서처음使用된高貴美肌料스킨호르몬性라세란은

▲호르몬性劑中特히優秀한皮膚榮養素다。

▲물에잘풀어짐으로皮下깁히滲透하야서疲勞한皮膚細胞에活力을줌으로살결은어느듯潤이잘흘르고결이고워지며、기미、白粉毒、여드롬等을업새바린다。

터지고·凍傷의 豫防과治療

生生한고흔化粧을오래가지기에는 언제나부드럽고 고흔살의所有라야된다。貴重한살의保護와治療는每夜이짓지안토록注意하십시요。살이더러운그대로 주무시면 美容에對하야 너무無關心한분이다。就寢前에몬저良質의콜드를손바닥에뭇처서손가락끗으로 얼골、목덜미근처를문질느고 부드러운가—제로살살크림을다거내십시요。皮膚의더러운때를빼기爲하야 비누를써서 洗面을하신다는것은겨울에는特히禁物이다。기름만흔콜드로洗面하는것이第一이다。

그다음엔지손가락만큼하게마스타—콜드를떼여서얼골부터목덜미까지 充分히발느고손끗으로 둥그스럼하게살살문대십시요 이마싸지—는多少血液의循環을促進식히는程度에끄칠것이오 마싸지만하면 조흘줄알고十分이고二十分이고빼빼문질는것은大禁物이요 그때에는조곰살이퍼여서 조흔生覺이나나病이라도나서 마싸지를조금게을이한즉 곳 보기흉한주름이잡피게되다。

良質마스타—콜드를充分히발느면十分쯤그대로두고살이섭분은조곰크림이살에남어잇도록부드러운가—제로다거내고기름만흔부드런조히로크림을닥다거내십시요그리하야그대로지무십시오前날밤에이러케손질을하여두시면그잇튼날아츰에살작세수만하여도充分하나뜨거운湯으로세수를마시고一年내찬물로싯처주십시요。

터지고·凍傷의治療

◇凍傷은한習慣性이라고볼수잇다二年계속하야안나오면三年재부터는大槪이저바리게된다皮膚가치위를맛나면血液循環이남버저서일어나는것임으로마싸지가第一이요。콜만잇스면맛사지하는것이大端効果가잇다微溫湯으로깨끗이손을싯고콜드를充分히발너서맛사지를한다。불에손을대면푸손을充分히다고就寢前에治療를하여둔다。不幸히도凍傷이되여바린때는빨이治療를하야곳치準備가必要하다

1 生明礬을뜻뜻히물에풀어서患處를적실것
2 무를갈어서뜻뜻하게하야患處에다펄것
3 에괴를엽게주어서患處에다펄것
4 가지마른나무를대려서그물을患處에다펄것
5 요지진기름을患部에다발를것
以上을各一日三回씩할것

어려터진것은凍傷에依한것이나혹이는겨우으른분에게만타기름이不足한것이主要原因임으로손을더러히고찬바람에쏘인뒤는따스운물로손을싯고곰기름아조섭새여바른뒤에마스타—콜드를充分하게발너서살살맛사지하야入浴하실이조코도뜻하게하야조리이것은簡單하면서그다이러케하시면效果가잇다。

000275

經濟解說 "增稅說擡頭" 根據가어듸잇나 (二)

申泰翊

高橋藏相이 增稅尙早論者主張하는그裏面的 事情은무엇인가하면 이것은 달은것이아니라 亦時 軍事支出에對한 定見을 못가지는때문이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오늘에잇서서 年年膨大한 豫算이 編成되며 오는것은 以上에서 말한바와가티 主로 軍事費의膨脹에 잇는것인마큼 健全財政으로 도라서라고하면 무엇보다도 그軍事費가 압흐로 如何히될가 그것이안코 明年度로서 그絶頂으로 되고 漸次減縮케될가 確信을 가지는等 어듸로든지 確信을 가하질만한 情勢의考察이 어려운터이다 그럼으로 이에 對한定見을 세지안코는 오늘에잇서 함부로 增稅이나 赤字公債의 大減縮에 손을 대일餘氣를 못가지고잇는때문이다

×

그러면 高橋藏相은 何等의目標가 업서 無定見의 財政政策을 取하는것이냐 할는지 모르나 그러나 반드시 그러치도아니다 卽이미 軍縮會議에서 日本이 脫退한뒤 將次各國의動向이 어떠한 길로 드러설는지 自信잇는考察이 어려움으로 이때에 軍事費의減縮을 바라기는 거의 不可能의 일이다 그럼으로 高橋藏相은 압흐로 軍事費가 增加의 必要를 안느기게될때 다시말하면 軍事費의 增加에對하야 한계가 서게 되때에야 赤字公債의 減額을할수잇고 또는 增稅를 할時期로 目標를 삼고잇는 傾向이잇다

×

이것은 무엇으로써 그와가티보는가 하면 다음과가튼 高橋藏相의 聲明에 依하야 能히 짐작할수가 잇다고생각한다 『日本의財政運用은 當分間公債發行에 依치안흘수가업다 만약에 公債政策에 잇서 支障이 생긴다고하면 그때에는 國防產業 國家施設도 繼續키 어렵게되지안흘수가 업게될것이다』 이와가티 歲出을 어데까지 公債政策의 範圍內에 두고또 한便으로는 軍部로부터의 軍事費要求에對한 一種의 豫防的言明을 하고잇다 그런데 이로써 두가지의正反對되는點을 차저낼수가잇다 첫재로는 高橋藏相의 言明은 인플레가 進行途中에 잇슴을 말하는것인 마큼이 皮相的만으로는 [illegible] 가지고잇다 그러나 둘재로는 지금에 高橋藏相이 增稅尙早論을 主張하는것은 오늘에잇서 增稅의必要를 조금도 안느기고잇는때문이 아니라 實은 軍事費의膨脹이 어느때까지 繼續케될가함을 豫測키어려운 情勢에잇는까닭에서 展開되는情勢에 適應한 政策을 取하라는 態度이다 이것을 가지고생각하면 到底히 樂觀할수업는狀態로된다

×

다음에는 요새 財界一部로부터 머리를 드는 增稅論은 어떠한 根據가잇는가 이말을 엽피생각하면 오늘에 일로러 藏相의 增稅의必要를 明白히 [illegible] 增稅論이 儼然 되것과 가티생각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지금의 增稅論은 全部의 根據가 아니다 勿論 이미 五個年間이란 오랜時日이 어느덧 赤字公債가 百億圓을 突破한만큼 軍事費의 急增은 업서 增稅를 드러 不健全한財政으로 化케함에는 增稅의 新財源을 求하자는것도 그根據가 될것이다 그러치만 이보다도 오늘에잇서서 增稅論의 큰根據가 되는新傾向이 잇슴을 看過할수업다 卽 目下日本內地의 社會的面에 흘느고잇는 資本主義 經濟를 排擊하는 現企的思想에 對한 緩和劑로 增稅의 擧措가 생기나는바가 만흔것가티 보히는때문이다

×

그래서 오늘의 增稅論은 一般의또는 藏相의 增稅論을 달히 하는것이 아니라 現經濟情勢를 脫하지안는程度 또는 從來의 稅制整理를 [illegible] 하는것으로 結局 그增稅는 約二億圓에 그치는程度를 말하는것이다 [illegible] 日本財政의 實情은 [illegible] 化를 作한 增稅論 또는 이에 對한 [illegible] 보는것이 [illegible] 生覺한다

(終)

正租賣買旺盛 市價되相當高騰

前年이때에比하야斤一錢高 ◇…產地精米所增加

今年度에 드러온뒤부터 正租의價格은 前年度同期에 比하야 依然斤當一錢가량의 高價를 維持하고잇는바 그原因은

一、正租의 共同販賣、貯藏資金의結果 精米側이 採算點까지 사드리고 따러서 이것이公定市勢로되는것

二、檢査實施에依하야 精米所의能率을 發揮한結果 正租의賣進이되는것

三、農家의 覺醒과 產地精米의進捗을 보게되는것

四、正租의 市場性增大

等의 諸理由로해서 今後도 그趨向을 持續할것이라는觀測이잇다

米穀管理는 米取打擊

對策講究할必要 ▲…秋山朝取理事 談

朝鮮取引所秋山常務理事는木村古谷、井谷等各米取關係者와한가지로 過般以來米穀自治管理案實施에 依하야米取의 影響에對한 善後策에 對한政府와 各關係方面과 意見을交換하고 十六日歸任하얏는데 如左히말하얏다

米穀自治管理案은 議會에提出未提出이 未決定으로 特別議會의期間이 三週間에 亘케되면或은上程되지도모르다 萬若 管理案이 通過된다면 米取에는 相當한打擊을 難免할것이며 이에對하야서는 米取關係方面에서 愼重研究하고잇다 政府에서도 現在米穀配給調整委員會를 設하야 이것을三部에分하고 研究中인데 그內容은 一切不明이다 朝鮮側의希望으로서는 旣得權을 어듸까지 尊重하야 國家補償其他에依하야 經營을 繼續하자는데잇는데 이點에對하야서는 關係方面에 充分한諒解를 求하고왓다

日銀利益의激減

公債賣却益減退 資金需要의減少

【東京電話電通】 日銀十年度下期營業報告는 十五日의 定期株主總會에서 報告하얏는데 十年度下期의 純益金은 一千五萬五十圓으로 前期에比하야 一擧七百七十三萬七千圓의減少이오 收益激減의主因은 一般的으로 資金需要에對하야 平均的으로 日銀에 喚起되지안흔點에도 依하나 公債賣却益의 減退에잇는것을 十年下期中의 公債賣却益은 一千九十二萬圓에 止하야 前期에比하면 八百六十一萬七千圓、前年同期에 比하면 三百八十萬三千圓의 各減少이며 損益勘定中主要勘定을 摘出하면 如左하다

一、利息收入은 三百四萬四千圓으로 前期에比하면 二十三萬七千圓增加이나 前年同期에比하면 八十萬四千圓減少이다

一、日銀兌換券發行高는 增加되엇스나 一般的資金需要에 基한것이아니오 主로 金의買入에基한것임으로 無利息이오日銀利息收入을 增加치못한것이다

一、公債利息은 七百五十二萬四千圓에 達하야 前期에 比하면二百二十九萬一千圓의 增加인데 이는日銀所持公債의 增加結果이다

一、割引料는 前期에 比하야大差업서 繼續하야 一千三百三十三萬三千圓을 計上한 一方損失勘定에잇서 七百四十七萬三千圓을 計上하야 六十四萬餘圓의 損失增인 結果 損益을 相殺하면 前期에 比하야 約七十一萬餘圓의 減少이다 十年下期割引料損失高가七百四十七萬餘圓에 達한것은 主로서 米券의 賣却이 만엇던때문이다

一、公債益에잇서는 上述과如히 前期에比하야 八百餘萬圓 前年同期에比하야三百八十餘萬圓이 急減되어 一千九十二萬圓인데 이는 最近의賣却에基한過去의 公債賣却益의比率이 減少된結果이며 公債損勘定에 잇서는 十年下期는 一千餘萬圓의 公債賣却損을 計上하얏슴으로 이損益을 相殺하면 十年下期의 公債賣却益은 十萬餘圓의 少額으로된다

市中金價暴騰

倫敦金塊續騰에 伴하야 東京의市中金價가 連騰됨으로京城市中의 金價도 暴騰되더니十六日은賣一匁十一圓七十五錢、買十一圓六十五錢으로 賣는一圓十錢高、買는 五錢高로大幅飛騰이엇다。十六日入電倫敦金塊는 一온스 七磅○志十一片二分一로 一匁換算은 十四圓五十七錢이엇다。

滿洲、中國 下期經濟

朝銀總裁報告

滿洲의 一般經濟界는 堅實한發達을하는中으로 滿洲의 農作은 主要農產物의豫想收穫高에잇서 約一千五百三十五萬噸에達하고 作況不良이던 前年에比하면 二割一分의增收가豫想되나 七月中南滿洲의水害等에依하야 小麥、水稻、荏苒을除하면 各作物이大槪平年作에達치못하얏다고傳한다 當期中의特產界는 前期末의恐慌의餘波를受하야 特產商의 休店廢業者續出하얏슬뿐아니라 歐洲向輸出은 依然히不振하고 特히收穫時期의降雨連續에因하야 乾燥不充分한 水豆問題도 發生하야 出廻가大槪不圓滑인때문에 當期中大連港의 特產物輸出高는 百二十九萬噸이되고 前年同期에比하면二十七萬噸의減少이엇다 그다음輸入方面은 地方農民의疲弊가充分히恢復되지못한데다가 通貨低落에基한 購買力의減退에因하야 綿絲布、諸雜貨와如한 大衆向商品은 取引이大槪閑散하얏지만 諸般의建設에要하는 資材에는 相當多額의輸入이잇서 滿洲의新企業은 續續하야 各地에서 實現되는中이나 當期中의新設增資에關한 會社와如한은 社數百四十八、資本二千二百三十萬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社數는增加되어도 資本은 半減되엇다。 如斯히 滿洲國의 昨年一月以降十一月까지의 貿易은 輸出三億八千萬圓、輸入五億五千四百萬圓에達하야 前年同期間에 比하면 輸出은 二千五百萬圓 減少이나 輸入은 一千六百萬圓 增加이오 入超額은 一億七千二百萬圓이다 그다음 一般金融界는大體穩慢狀態를維持하고 主要八都市의內外主要銀行勘定에 徵하면 昨年十一月末現在 預金은 金銀兩建通計에잇서 四億八千萬圓貸出 四億一千萬圓으로 前年十一月末現在에比하면 預金 三千二百萬圓 貸出二千九百萬圓의 各增加이엇고 滿洲의 特殊大會社의 日本內地에서의 起債와 其他에依한 日本內地資金流入은 滿洲와 日本內地 金融市場과의 聯繫를緊密케하얏다。 要컨대 最近의 滿洲는 農村經濟가充實치못하고 特產界는大槪不振狀에 經過하얏지만 交通의 急激한伸展과 各方面의 產業開發과는 漸次地方經濟의發達을 促하는同時에 日滿經濟關係는 緊密의 度를進하고 一般經濟界는 去益健全한 進步를보이는中이다。特히 滿洲國政府는 通貨統制 必要上九月初의 國幣對金圓市勢의 等價不現象을 機로하야 日本政府에 交涉한結果 兩國政府의 이에關한 聲明이잇고 關東州及滿鐵附屬地에서의爲替管理規則改訂、滿洲國爲替管理法의 實施에及하야 國幣에依한 通貨統一을 實行하얏슴으로 當行은 國策에 順應하야 滿洲中央銀行間에 이에關한 業務上의 協定을한바잇섯다。 滿洲의 通貨는安定되고 財政經濟基礎를 確立케됨은 同慶이다 中國에잇서는 政情不安이 繼續되고 七月에는 黃河流域의 大洪水가잇섯을뿐아니라 奧地農村窮狀이 深刻하고 米國銀買入政策에 累되어 現銀의 流出不熄이오 經濟界의 金融梗塞과 金利昂騰을 招來하얏스며 各地의 金融業者의 破綻이잇서 上海市場은 一時恐慌狀態이엇다 十一月幣制改革의斷行이잇는結果、金融은 漸次緩和되엇스나 其後의 銀價大暴落은 幣制改革의前途를 不安케하고 其國體가容易히 窺知할수업는狀態이다 昨年中의 全中國貿易은輸出五億五千萬圓、輸入九億二千萬元으로 前年에比하면 輸出은 二分八厘激增이오 輸入은 一割一分의減少로 尙多額의入超를繼續하는狀態이다 (終)

米穀生產費調查 四道協議會開催

十七日京畿、咸南北、江原

總督府米穀生產費調查委員會協議會는 十七日 午前十時부터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京畿、咸南北、江原의 四道調查委員約三十名이 參集하야 明年度調查方針을協議하얏는데 十九日까지 續行할豫定이라고

無煙炭의 移出協定

數量五十萬噸

明年度의 朝鮮無煙炭 日本內地移出協定은 過般의 無煙炭組合總會에 附議되던 總督府에서도 石田鑛山課長이 臨席하얏던데 明年度出炭은 年間五十萬噸 規格前年掘資量을決定하엿스며 今年度의移出協定數量은五十五萬噸으로 今年은五萬噸減인데 昨年의實績은四十九萬噸이엇슴으로 實績에準한것이며 價格其他는 擱置로되엇다 그리고 市場情勢에變化가잇슬境遇는 六月頃 再會하야 改訂附錄할豫定이라고

鰮粕協定 細目協議

繼續開會中

鰮油肥 新協定協議會는 十五日 鰮油의 保留量及 期間을 決定한以後 十七日도 午前十時半부터 粕의協定期間及 外地需要品의 相對會社問題를 中心으로하야 討議를繼續中인바 各道의意見이 一致되지못하야 困難한狀態에잇다고한다

京畿道內無盡

合同이尙不一致

京畿道의 無盡合同은 去一月末 道內務部長이 業者를 招致하고 合同方針을 內示하야 이에 基하야 關係各社間에서 考究中이든바 十五日午後 內務部長의 再招致에 出席한것은 共濟、興業의兩社뿐이오 各社의 步調不一致를 如實히示하얏다。一月末의 業者懇談會에서는 二月二十日까지에 各社의 最終態度를 表明키로 되엇스나 이期日까지의 各社態度決定은 至難인듯하야 目下裏面工作이 續行되리라한다。道의統制原案은 資本金三百萬圓의 新會社를 創立하야 四社合倂外에目下申請인 朝鮮人中心의 無盡會社도 資本參加케할計畫이라한다

朝鮮米會議不振

兩方意見不一致

東京의京濱受荷主主催의 朝鮮米運賃과 輸送에關한協議會는 지난 十二日以來 連日續行中인데 日本內地、朝鮮荷主間의意見이 一致되지못하야 船會社와의折衝에는 아즉 못드러갓스나 一兩日中 荷主間의態度가 一致되면 船會社와의本交涉에 드러갈것으로 期待된다

對外爲替市況

【東京十七日電話同盟】

▲東京爲替

對米 賣廿九弗八分一 買廿九弗四分一

對英 賣一志二片 買一志二片卅二分一

▲大阪爲替

對米 賣廿九弗八分一 買廿九弗四分一

對英 賣一志二片 買一志二片卅二分一

東拓配當復活中止

東拓은 昨年下半期決算에잇서 三分配當復活이 期待되는바 拓務省과 大藏省에 異論이잇섬으로 畢竟 配當復活을 斷念하엿는데 이에對하야 十五日東拓支社도 拓務省과 協議한結果 今期配當을中止하고 利益金은 社內保留에 充當한다

經濟界消息

○煙草賣渡高=專賣局二月上旬製造煙草賣渡高는 合計百四十八萬八千八百圓으로 各支局別은 ▲京城五四一、一五五圓▲全州三二三、○五八 ▲大邱二七三、七六○ ▲平壤二八○、九三二 이며前年同期에 比하야 九厘增이라고

○全國經濟調查機關朝鮮支部會=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朝鮮支部에서는二十日 午後四時半 京城府民館에서 例會를열고 善生永助 中山幸三郎(殖銀)大內武次(京城帝大)氏等의講談이잇슬터이라고

○青年實業家座談會=京城商議主催로 十七日 午後一時부터第一回青年實業家座談會를 열터인데 京城府內의 青年實業家十三名이 出席하야 京城의貿易促進、商圈擴張、商店街繁榮 [illegible]

株式 商況 (十七日)

下押 戾賣物로

前場鈍重

休日을 지난今前場은 外電이 [illegible] 米棉五十二錢低 爲替二十九弗二十一仙으로 [illegible] 比하야 東新十錢低인 百六十三圓四十錢(東京보다一圓上鞘) 大新九十三圓四十錢 日產二十錢低인 七十四圓二十錢에各 大引 拓新十六圓二、三十錢 [illegible]

後場下押

後場은 下押不勢이엇스니 即前引에比하야 東新一圓十錢低인 百六十二圓三十錢、大新七十錢低인 九十二圓七十錢、日產二十錢低인 七十四圓丁、拓新 十六圓四十錢에 各大引、朝新二十九圓八十錢

拓新株續暴落

東拓은 三分配當復活說을이르다가 總會延期로 配當復活에 疑義를가저서 十七圓臺로 暴落되더니 三日이 拓務省에서 東拓의配當復活을 拒否하얏슴으로 今前場은 十六圓二十錢에까지 떠러저 高價에서 二圓이나 反落되엇는바 今日入電東京現株市勢는 舊株三十七圓五十錢 新株十六圓七十錢으로 比前日舊七十錢低 新六十錢低이엇다

東新依然徘徊

前週土曜에 東新은 經濟株式總會의 刺戟도잇서 戾新價이엇스나 雜株價의 保險的賣物이 만허 雜株가리는 上伸치못하고 總選擧前株式時의場面이되니 今前場도 戾實物로 伸惱이오다만 底堅일뿐이엇다。그러나 強氣로서는株界의 大勢가 財界와 金融界의無變化로 上昇傾向이라면 가장 [illegible]

今日財界 (十七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一斤 [illegible]

◆市中金價 一匁 賣 十一圓七十五錢 買 十一圓六十五錢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高無現 [illegible]

이런말도잇다

東新은 市勢는單純하다。昭和九年은 株界에서 先走하야 압흘보지안코 積極的로 買進해야한다가 資本家의賢明은 失敗이엇는데 이번에는 反對로 株界가 암만내다보고 있는동안에 優良株를 保險會社에서 사야하겠다 이것이다 즉 市勢의初步는 언제던지 大株合이잇는法으로 東新二十圓低의大下押으로보아 五箇月이라는 지극부터 사가지고 참으라는말도잇다

當分弱材優勢

十一月까지는 大體市勢는 當分被復키 難할것이라고 去一月中에 演出한 阪地三十二圓十錢과 當地三十圓○六錢의 春相場의 天井이라 할지안흘지는 疑問이나 大體市勢는 日本內地米實取高의 四十萬石增加는 受한 以來內面軟弱에 傾하야 共間日本內地의 降雪과 朝鮮의 結氷으로 產地出廻에 非常한 支障을 與하엿슴에도 又는 政府 米第二次買上이 잇섯슴에도 强味를 添하엿슴뿐으로 보면 又復 一段低落을 豫期할수 잇다 그런데 茲에 一考를 要할것은 農家의 態度가 繼續强硬하야 手持米를 賣出하지안는 程度까지의 瓦落을 免치못할것이며 又는 政府米 第三次買上을 繼續實行하지 안는때는 그 [illegible]

鍾新絶大期待

鍾紡은 三井、三菱으로부터 三千萬圓의 融資를 得하야 鍾新은 其間에 十二圓五十錢에 近付한것으로보아 第二回拂込도 急히 實現할것으로보며 東京大阪의 株價株不足과 相俟하야 再買進되고 特히企業條件이 有利한 朝鮮으로부터 滿洲에 進出하는計劃에 對하야 強氣는 絶大한 期待를 가지고잇다한다。

實物前場株取引

▲帝國火藥 一四八○ ▲北鮮製紙 一九五○ ▲朝鮮石油 一七三○ ▲秋田木材新 二六五○▲日本曹達新 五一○○ ▲石川島造船 六四○○ ▲石川島新 一五○ (取引高一四○○枚)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 休日後의市場은 强弱雙方의 氣迷濃厚로 閑散이오保合이다

甲五分利 一○五、四○

佛貨四分利 一八、六八五

仁川在米減少

【仁川】 本月十五日現在 仁川在庫穀物은 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五四○叭의減少를 示하엿는데 在品을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政) 一七九、五三○叭 (民)三四三、七八五叭 五斗入 二、四二七叭▲白米三三七叭▲ 正租叺入(政) 八六、九三三叭 俵入(政) 六二二俵 (民)一四五、○三九叭 俵入(民)一、六二二俵▲大豆三九、二九六叭 ▲小豆六○○叭▲大麥(白)六、三○○叭(操)三四五叭▲小麥二、四、五六八叭▲粟米一、九○○叭 五斗入二八二叭▲粟一○七叭 六、六五二俵▲荏子一、○○叭▲胡麻九八俵▲黍一、二五三叭(高粱)四○○俵▲黃參一、○二五叭▲綠豆一六○叭▲糯米九八九叭▲(蕎麥)四、五二○俵(日本)三三、九九八俵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 中 先 ◇買方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東京側 朝鮮側 山種、地場投資山 ▲買方=株式側地場 嘉商側中東側利喜滿政

各地正米

京城引緩

積極關係로 產地積物이적고 期米의低落을보고二十錢引緩인 九仁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低落

當用買不振에다 가期米의 低迷商狀을 移하야買氣가 極히 乏하고 氣配二十錢低인 丸仁 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八錢

釜山下走

市場實物 三千叺 [illegible]

大邱低迷

期米低迷를 보고 賣氣 [illegible]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群山氣崩

[illegible]

木浦反落

[illegible]

朝米 先限까지 臺割

前場反落

再昨後場 阪地三十一圓三十一錢와共하 二十九圓十二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 休令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二十七錢인 四丁反落을받하고 二十九圓○八錢인 亦四丁低로場을始한後 阪地二節十四錢까지의 反落과相俟하야 八圓九十五錢까지 反落하엿다가 結局設止二十七錢의反高를入하야 九圓○三錢에 場을止하다

後場低迷

後場은 二十八圓九十八錢에 五丁低로始後場 二節九十七錢으로 五節九十八錢이 고 九十錢에 止場하다。

當地九圓臺割 大體軟勢保合

一時日本內地의 降雪과 朝鮮의 結氷으로 產地出廻가 全혀杜絕되고 딸아서 市勢는東西市場을 不問하고 強硬을持續하엿스나 雨水에 接近한春日이라 可謂是는 格言그대로 逐次消融되므로 產地出廻의 如何는 不拘하고 極度로 強硬하엿든 氣만이 먼저 引緩되고 又는本月末日로써 朝鮮의 短期貯藏租가解除하게되는때문에 賣氣는又一層濃厚하게되엿다 果然此等의勢材에 拘碍되어 產調農家의賣急物이 續出할지안흘지는 尙疑問이나 그러나當分이러할만한強材가업는마큼 又一段軟弱할것으로 보시안흘수업다 압흐로第三次買上을 唯一한 強材로 스나 第二次買上의 成蹟이良好하엿슴에도反히 軟態에傾하엿슴을 보면 第三次買上도 그다지強材化하지못할것을 豫期할수잇스며 從하야 農家의狼狽的 賣物도업 [illegible]

市場六感

株 戾新價을보인東新 依然히 雜株의保險賣物로頭重伸惱▲東新이 이러다가 雜株는穩健味를不失한다고 ▲東新에點火하야 總花的買氣爆發하면 上市勢終焉이겟는데 좀처럼 이 뛰지안코 걱정업다고▲東新도 東京短期取組가 三十七萬三千六百株로 減退하야 昨年十一月最高取組 四十三萬五千株에比하면 三十五對六十의低 되세음이나 生氣가업는모양 然大下長이니 雜株高가 畢竟 東新에 오고말것이 大勢라하야 思目買로 臨할것이라는 말도 잇는

米 今朝氣配은 產地出廻에多少支障이될수잇스나 旱地에는 얼마큼有助 ▲그런데市勢는반 地의低落과相俟하야 雜穀의二十九圓臺割破 ▲雜穀의九圓 新가깨어젓스니 又後一落도可期할수잇다 그러나 關門戰이 한동안벌어질모양▲硬派는 第三次買上을唯一한 强材로 主張하나 그러나 第二次買上의 成績이良好하엿슴에도 反落하야 엿슴을보아서 반드시强材視할 수업는걸 ▲軟派는 今月末로 써朝鮮正租의 短期貯藏이 解除됨으로 產地의 賣物이 一時旺盛하야 實勢壓迫을 加할 기틀이라고主張 ▲그러나今年은 日本內地又朝鮮을 不問하고 農民의 賭首가 根本的으로 硬化한만큼 出廻가旺盛할이라는것도 마치疑問▲何如間大勢는 產地出廻의稀薄도 又는買上도不拘하고 纖維軟弱한 것을 보면 大體大勢의恢復은 至難할 모양▲압흐로材料社할것은 日本內地米三月一日殘存과短貯解除後의農家의態度如何를두고보가

帝 商況 十七日

◆海外銀塊◆ ◆大阪金利◆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京城油沖價◆ ◆大阪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商品 十七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橫濱生糸◆ ◆各地人絹◆ ◆大阪砂糖◆ ◆海外砂糖◆ ◆天外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多摩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雄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成興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 十七日

◆朝取期米◆ ◆仁川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正米標準值◆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朝取期米賣買高◆ ◆新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株式 十七日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長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實定七川ヨリ◆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金・銀・白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番地(小寶橋側)

電話本局二三一六番

振替京城壹五四番

地方注文 代金引換 送料先拂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產業組合平北寧邊產業組合等에서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

生絲。人絹絲。麻絲

都賣下命하시면 時價로廉價奉仕하오니 用命하시면 期日內에 送呈함

京城府昌信洞三二○

同水社

電話(光)一八二八番 振替京城二六四八八番

工場 同水製絲場